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50.19	↑ 코스닥	701.21
	(+60.22)		(+12.27)
↓ 금리 (미국 9년)	3.577	↓ 환율 (원/달러)	1243.50
	(-0.104)		(-25.10)

【뉴스】
복지부 등 업무보고
尹 “보편복지에
과학적 접근 필요”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HD현대가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3'에 선보인 미래선박을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HD현대

자율주행기술·무인선박·UAM·선없는TV 등 경쟁력 입증한 K산업 해외서 잇단 ‘러브콜’

모처럼 성대하게 열린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3'에서 국내 기업들은 수많은 '짜인'을 받아내며 다시 한 번 수준 높은 경쟁력을 확인했다.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는 물론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올해 CES2023를 통해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만나 다양한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자율주행 분야가 대표적이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개발을 포기하면서 위 기론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앞다투어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CES서 해외기업들과 다양한 논의 LG전자 전장기술, 마그나와 협업 현대모비스-퀄컴 자율주행 맞손 HD현대, ABS와 무인선박 가속화 현대차-MS美 UAM 상용화 준비

LG전자는 이번 CES2023을 기점으로 파워트레인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뿐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보하며 완성차 업체 수준 경쟁력을 완성했다. 마그나와 파워트레인 부문 합작법인에 이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한 것. 조주완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차량에도 OEM을 공급할 수 있을만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경쟁력을 자신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도 역대 최대 규모 부스에 자율주행 솔루션과 이코너모듈 등 신기술로 현대자동차 빈자리를 채웠다는 평가, 퀄컴과 자율주행 3단계 구현을 위한 통합제어기를 개발하는 MOU

를 체결하며 반도체 기술 공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그룹도 미국선급협회(ABS)와 자율운항 선박 솔루션 개발과 실증에 협력하는 MOU를 맺었다. HD현대가 자율운항 선박을 미래 먹거리로 힘을 실어온데 더해, 이번 MOU를 통해 본격적으로 무인 선박 개발을 현실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HL클레무브도 미국 소나투스사와 차세대 전장 아키텍처 기술 개발을 위한 MOU에서 서명했다. HL클레무브는 HL그룹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회사인 소나투스사와 함께 통합 제어기 등 신규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장 아키텍처를 개발하는데 힘을 합칠 계획이다. HL만도도 이스라엘아그거스와 자동차 보안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CES2023에 불참한 현대차는 오히려 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겨냥했다. 항공 모빌리티 부문 독립 법인 슈퍼널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2028년 미국에서 UAM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자율주행 4단계 '로보택시' 상용화를 준비 중인데 이어, 한 발 앞서 자율주행 항공모빌리티까지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친환경 시대를 대비한 협업도 이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독일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및 에스토니아 엘코젠과 MOU를 통해 선박용 대용량 고체연료전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벤처캐피털 플래그십플레이(PhP)와 친환경 스타트업 발굴을 함께 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깜깜이 회계’ 차단...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고용부 업무보고

임금격차해소 상생임금위 이달 발족 기업내 임금정보시스템 연내 설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상생임금위)가 이달 중 발족한다. 노사는 물론 노동 전문가들이 참여해 임금체계 관련 법과 제도,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2면>

노사가 필요한 임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내 '임금정보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은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

부에 공표하는 '회계공시시스템'도 3분기 내 구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안을 업무 보고했다.

상생임금위는 기업들 간,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1월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노사를 비롯해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상생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로 진행될 예정이고, 정부는 직접 참여보다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

가기구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임금실태 조사와 분석,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를 설치, 운영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 현황을 공개하는 '회계공시시스템'도 올 3분기 내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취지다. 이는 윤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투(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인천공항 이용객 3년 만에 반등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탑승수속을 하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은 1786만 9000여 명으로 2021년 319만 8000여 명 대비 460% 증가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용객 수도 3년 만에 반등했다. /뉴스IS

‘가치소비’ 호응하는 유통가, 전문관 신설 바람

MZ세대 미닝아웃 확산에 잇단 론칭 11번가 'SOVAC마켓' 거래액 120억 이마트 '자연주의', 상품 라인업 강화

유통업계의 '가치소비' 전문관 론칭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벌어진 후 기후위기와 동물권, 소외계층 등을 향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자기 전시에 능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소비로 드러내는 '미닝아웃(Meaning Out)'이 확산하자 여기에 기업이 호응했다.

11번가는 지난해 가치소비 전문관을 통해 백억대 매출을 올렸다. 9일 11번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상품 전문관 'SOVAC마켓'의 지난해(1월1일~12월

29일) 누적 결제 거래액이 120억원을 기록했다. 고객 수만 27만 명에 이르며, 셀러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SOVAC마켓은 11번가가 2021년 SK그룹의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와 협업해 연 사회적기업 상품 전문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셀러로 입점해 다양한 가치소비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마트는 친환경·가치소비 브랜드 '자연주의'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리브랜딩과 리뉴얼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주의는 지난해 7월부터 원재료부터 제조과정, 포장재까지 가치소비를 고려해 개발한 가공PL을 선보여 현재 25종을 운영하고 있다.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리브랜딩을 하고 상품 구성을 늘렸다. MZ세대와 프리미엄 상품 선호와 가

치 소비 실천을 동시에 공략한 곳도 있다. SSG닷컴은 지난달 22일 랩프로운 다이아몬드 공식브랜드관을 열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져 친환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성분, 굴절률, 분산도, 경도 등 특성이 동일하면서도 30~70% 저렴하고, 채굴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 물질이 없고 비윤리적 노동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가치소비 전문관과 캠페인 등이 확산하는 데에는 달라진 사회의 인식과 경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가 갈수록 기업 윤리에 예민한 고객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소비 성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감찰조사팀 신설에 사이버사령부, 또 이전
▲ 용산발 압박 속 고민 깊어지는 나경원... 출마 결심 굳히나 /사진 뉴스IS

▲ 野, '尹·김건희 풍자' 국회 사진전 철거에 '야만적 행위'
▲ 국방부 "北무인기 대응은 자위권... 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



▲ 특검,故이예람 성추행 중사 '2차 가해' 혐의 징역 2년 구형
▲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사진 뉴스IS

尹 “보편복지에 과학적 접근 필요… 이념·정치 등 개입 안돼”

尹 대통령, 복지·고용 등 업무보고
“노동개혁, 수요기반에 맞추고
노노간 비슷한 보상체계 있어야”

“감염병 대응에 국민 건강만 생각
외교·경제통상·정치 고려치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에 대해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복지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며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해 우리의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 복지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라며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의 공익성에 따라 개념을 설정하고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에 선순환을 줘야 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한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등이 개재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부를 향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중 최우선으로 꼽는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져보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된다”며 “그리고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노(勞勞)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를 향해서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며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에 대해서도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많은 규제들을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불필요한 규제나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걸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윈스톱으로 할 수 있고,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바이오산업, 의학 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질병청을 향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며 “어떤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 지간에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1면 ‘경쟁력 입증한 K산업’서 계속

“플랫폼 기업 지원할 것”… 中, 빅테크 규제 마침표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인민은행 “14개 기업 특별단속 완료”
지난해 9월 20일 이후 규제회의 안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마윈의 경영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지분구조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립자인 마윈. /AP·뉴스시스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2년 이상 이어진 단속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9일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 귀슈칭 공산당 서기는 “14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단속은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주석이기도 한 귀 서기는 “향후 이 부문에 대한 감독은 정상화될 것이며, 플랫폼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급 규제 당국자가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홀딩스를 포함한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을 묶어낸 대규모 단속을 끝낸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빅테크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 나섰다. 대상도 전자상거래는 물론 차량 공유와 온라인 교육 등까지 광범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대를 모았던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는 중단됐고, ‘중국판 우버’인 디디 글로벌은 미국 증시에 이름을 올린 지 다섯 달만에 스스로 상장 폐지를 선택해야 했다. 알리바바에게는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으며, 음식 배달업체인 메이투안은 배달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경기 침체에 규제까지 겹치면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류허 부총리가 지난해 3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가능한 빨리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하

며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5월에는 인민은행이 해당 기업들에 대해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뒷받침했다.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작업회의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규제 정상화,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 등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14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모두 소집한 규제 회의는 지난해 9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당시 추가 규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대적인 규제 여파는 여전하다. 앤트그룹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지분 구조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부스 최고 인기 BMW와 전장 협업 기대

실제 싸인까지는 아니어도 추후 협력을 염두에 둔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이 국내 업체 부스를 둘러보는 것은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적지 않은 논의를 이어갔다는 전언이다.

삼성전자 부스는 올해에도 최고 인기를 누렸다. 현장을 방문한 국내 기업 총수는 물론, 글로벌 기업에서도 기술력을 확인하고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올리버 집세 BMW 회장은 삼성전자와 하만인 개발한 ‘레디케어’ 등 전장 기술을 확인하고 끈끈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BMW가 차세대 플랫폼을 공개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전장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박정호 부회장이 웰컴 CEO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폰용 AP에 이어 차량용 반도체와 IoT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웰컴에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기대했다.

LG그룹도 이번 CES2023을 통해 글로벌 산업계에 올레드 TV와 전장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된 경쟁력을 재확인해냈다. 올레드 TV 10주년을 맞아 내놓은 선없는 TV 시그니처 올레드 M에 글로벌 관계자들 관심이 이어졌고, 특히 처음으로 오픈 부스를 운영한 LG이노텍은 예년보다 고객사 미팅을 2배 이상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밖에도 CES2023에 참가한 스타트업과 국내 지자체들 역시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MOU를 맺으며 세계화에 힘을 실었다.

/김재용 기자 juk@

쌀·쇠고기 등 33개 성수품 매일 물가조사

통계청, 설 앞둔 20일까지 실시
“민생 안정대책 지원 자료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인 쌀·쇠고기·치킨 등 33개 품목에 대한 물가 조사가 매일 실시된다.

통계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일일 물가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설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일일 단위로 조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쇠고기·조기·과일 등 농축수산물 21개, 밀가루·두부 등 가공식품 5개, 석유류 3개, 삼겹살·치킨 등 외식 품목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4개 등

총 33개 품목이 대상이다. 토, 일을 제외한 평일 10일 동안 방문(면접)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통계청은 “성수품 수급관리 등 정부의 설 민생 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조사 협조를 당부하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정보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주 52시간제 업종·특성맞게 유연화 추진

>> 1면 ‘깜깜이 회계 차단’서 계속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재정·회계 투명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노조는 이 기간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 운영 자료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공개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별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권고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한 휴식을 보상받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정년연장’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안도 2월 중 마련한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 대상으로 신용 제재, 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책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전 세계인 반한 SK의 '탄소감축 행동'... 전시관 '핫플' 인기

친환경 제품, 대체식품 푸드 등 탄소감축 기반 신기술 전시관 오감체험 입소문 타고 3만명 몰려 최태원 회장도 현장 찾아 힘 보태

SK그룹 '탄소감축 행동'이 세계인 눈길을 사로잡았다.

SK가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3만여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 힘은 '탄소감축 행동'을 주제로 구성된 40여개의 친환경 기술·제품, 대체식품 푸드 트럭 등이 SK그룹의 넷제로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도 직접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넷제로 '오감 체험' 입소문

SK 전시관은 탄소감축을 주제로 한 체험과 시연에 초점을 맞춰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는 설명이다.

SK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열린 'CES 2023' 기간 중 그룹 통합 전시관을 찾은 누적 관람객이 3만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CES 2022' 기간 동안 SK 전시관을 찾은 1만1000여명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개막 첫 날인 5일 7500여명이 찾은 데 이어 6일에는 9500여명, 7일과 8일에도 약 1만3000여명이 SK 부스를 찾았다. 실제로 SK 부스를 찾기 위해 줄을 선 관람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K 측은 B2B관이지만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관들이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여 준다는 설명이다.

SK 관계자는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CES 2023' 야외 전시장 'SK 푸드트럭'에서 발효 단백질로 만든 크림치즈를 시식하고 있다. /SK그룹

같은 식물 소비재를 전시한 것도 아니고, 배터리 등 부품과 소재 중심의 B2B 기업 전시관에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양한 볼거리와 시식 등 '오감 체험' 요소들로 '탄소감축'이란 다소 무거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입소문이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CES 2022'에서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2억톤)을 줄이겠다고 공표하며 '동행'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민데 이어 이번에는 '함께(Together in Action :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자)'를 내걸었다.

이에 SK는 자유의 여신상 등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물에 잠기는 등의 가상환경을 통해 인류가 기후에 맞서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SK(주)등 SK 8개 계열사와 미국 플러그 파워(Plug Power), 테라파워(Terra Power),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 등 10개 파트너사가 함께 'SK, 아라운드 에브리 코너(모퉁이에 있는 SK)' 구역에 선보인 40여개의 친환경 기술과 제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 국내 4대 총수중 유일하게 CES2023 현장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늘 고민하는 주제인 탄소감축을 잘 풀어서 전시해 댄다고 기쁘다"

며 "환경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계열사 별로 SK텔레콤은 가상 시뮬레이터로 선보인 친환경 도심항공교통(K-UAM), SK(주)파트너 기업인 미국 할리오(Halio)의 스마트클래스(전기차 유리 투명도를 조절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제품) 등을 소개했다.

SK가 야외 전시장에 설치한 '지속가능식품 푸드트럭'은 'CES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나흘 간 1만5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해당 푸드트럭에선 우유빙수, 아이스크림샌드 등을 시음하며 미래 국내 유통망에 대해 설명했다.

◆경영진 총출동... 탄소감축 동행

SK 최고 경영진들은 CES 기간 중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파트너사 등 글로벌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 '넷 제로 동행' 강화 등을 도모했다. 최태원 회장이 수행원 코로나 확진 이후 당초 계획한 비즈니스 미팅들을 화상 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진 것 외에 최태원 그룹 수석부회장도 CES를 찾은 글로벌 기업인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장동현 SK(주) 부회장,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 등은 국내외 기업 전시관 수십 곳을 둘러보며 최신 기술 변화상을 관찰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SK텔레콤 유영상 CEO는 각각 웰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나 반도체 및 AI 사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지오센트릭 나경수, SK E&S 추형욱, SK에코플랜트 박경일, SKC 박원철 CEO 등도 각기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친환경 사업

확대 방안을 협의하거나 투자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CES 기간 중 SK 전시관을 찾은 글로벌 파트너 경영진은 SK와 '탄소감축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솔리드 파워의 존 제이콥스(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SK그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리오의 디미트리 립킨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은 "이번 CES에서 'SK와 친구들'이 지구를 더 나은 곳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완벽히 조망해 보여줬다" 말했다.

SK그룹은 '탄소감축 행동'이란 전시관 주제에 걸맞게 전시관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약 575톤 추산)를 상쇄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이 전시관 내 '넷 제로 기부 토크 게임'에 참여해 쌓은 포인트(약 1억원 상당)에 SK가 매칭해 베트남 맹크로브 숲 복원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CES에서 SK 외 다른 국내외 기업들도 '탄소감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등 넷 제로가 글로벌 중심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과 관련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탄소감축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금융권 수장들, CES서 '열공'... '빅블러 시대' 성큼

조용병 신한 회장, 함영주 하나 회장 신기술 제품, 최신기술 동향 살피고 새로운 사업 접목 가능성 등 타진

국내 금융지주 수장들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3'에 대거 참석하면서 '빅블러(Big Blur)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을 직접 찾았다.

그동안 CES는 주로 IT 관련 인사이거나, 소비자들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금융수장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인사까지 대거 출격하면서, 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Big Blur)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수요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이다.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이 금융사도 IT와 융합된 신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3'에서 신한은행의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신한은행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직원들과 함께 CES를 찾았다. 전 세계 최신기술 동향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그룹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함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하나금융그룹이 직접 투자한 에이슬립(Asleep) 부스를 찾았으며 국내외 기업 부스를 돌아보면서 디지털 미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함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디지털금융 혁신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휴와 투자, 다양한 파트너십을 보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SK텔레콤과 대규모 지분교환을 동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이번 CES를 통해서도 외부 기업과의 협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룹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주(오른쪽 두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여한 LG전자의 전시 부스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체험하고 있다. /하나금융

신한금융그룹에선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은행·카드·증권·캐피탈의 디지털 담당 임원 등 실무자 30여 명이 출장길에 올랐다. 디지털전환(DT)이 핵심 경영과제로 떠오르면서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등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 단독으로 CES에 부스를 차려 지난해 11월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Shinamon)'을 선보였다. 시나몬은 신한은행이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확장 및 연결해 만든 가상공간으로,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계가 가능하다. 기존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 다른 글로벌 은행들과 다른 행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CES 2023 참가를 통해 앞으로 마켓플레이스와 बैं킹이 융합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시나몬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 선도 금융기업으로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지주 산하 KB경영연구소의 글로벌·산업 분야 담당 연구역과 KB국민은행 디지털 담당 부서 실무자, 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 실무자 등 20여 명이 이번 CES를 참관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인데, KB손해보험 자회사인 KB헬스케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사업 접목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금융권의 핵심 경영과제가 된 만큼 금융지주 간 디지털 부분의 역량 강화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중소형 증권사 신용등급 '비상'... 부동산 PF 우려 고조

브릿지론 본 PF 전환 제동
우발부채 현실화 사례 증가
케이프투자증권 신용등급 하락

중소형 증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 향후 실적에 좌우될 것이라 설명이다.

9일 나이스신용평가는 '금융업권 신용등급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 중 하이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등을 올해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았다. 부동산 PF를 통해 최근 수년간 순이익이 크게 확대됐던 증권사를 위주로 한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본부장은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른 증권사 대비 위험도가 높기는 했으나 1%대 기준금리에서는 PF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리면서 진행 중이던 PF의 사업성이 크게 하락했다. 이 본부장은 "다수 사업장에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에 제동이 걸렸고, 우발부채가 현실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잠재 부실의 현실화 규모, 재무안정성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될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경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기 자본 대비 PF 비중이 높은 일부 중소기업

증권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 이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도 이어졌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수시 평가를 통해 케이프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A-)'에서 '부정적(A-)'

으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는 사업 기반 및 시장지위 약화, 이익 창출력 저하, 위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증가 등으로 인한 자본 적정성 저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프투자증권의 위험 익스포저는 3759억원, 자기자본의 145.5%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험 익스포저는 대출 및 투자금액,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케이프투자증권은 업황 부진을 고려해 법인영업부와 리서치사업부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예일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케이프투자증권은 부동산 관련 주선 및 자문, 자기자본투자(PI), 자기 매매 및 운용 등으로 영업을 유지했으나 시장 지위가 약하고 최근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며 저조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위험 노출액 증가와 직접투자성과 변동 가능성 등도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신평은 SK증권의 추가연계과

생결합사채(ELB)·기타과생결합사채(DLB)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A)'에서 '부정적(A-)'으로,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안정적(A-)'에서 '부정적(A-)'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후순위 부동산 PF, 자회사 지원 등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부담이 높다는 이유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SK증권은 총 3875억원의 우발부채(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에 달하는 규모다.

김예일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채무보증의 자본 대비 양적 부담은 동종기업(Peer)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나, 대부분 중·후순위 부동산 PF, 브릿지론 등으로 구성돼 있는 등 채무보증의 질적 위험도가 높은 편"이라며 "대규모 소재 주택, 지방 소재 오피스텔, 생활형숙박 시설 등 분양 사업장의 분양률도 현재 저조한 상황으로 회수 불확실성이 높아 자산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소득 관계없이 年4% 대출... '특례보증자리론' 흥행 촉각

이달 말 출시... 내일 세부사항 발표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최대 5억 대출
신규·대환·보전용 모두 이용 가능

주택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상품인 '특례보증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보다 낮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자산규모가 많지 않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말 특례보증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구체적인 신청·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증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으로 운영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자리론은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한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분없이 기존 보증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하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특례보증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DSR은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전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 분할 상환액이 차주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비은행 50%)가 적

용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당국은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지만 간간한 기준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신청이 저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금액은 9조 4787억원으로, 총 7만4931건이 접수됐다. 공급한도 25조원의 약 38%에 그치는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기준요건에서 3조 9897억원(3만9026건) 신청받고, 11월부터 12월까지 주택가격(6억원 이하)과 소득요건(1억원 이하)을 확대했다. 신청금액은 5조 4890억원(3만5905건)으로 37.5% 늘었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특례보증자리론 시행시기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담은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드사, 카드론·무이자할부 축소... 서민 유동성 '빨간불'

카드사들 잇따라 '디마케팅' 행보
현금 서비스·리빙 이동 불가피
중저신용자 부실 우려 가능성 커져

고금리 기조 속에 주요 카드사가 수세적인 경영에 나서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무이자 할부', '카드 한도' 등을 축소하고 있어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디마케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여전채 금리가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조달 비용 상승 등 부담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

율(DSR)에 포함된 데 이어 디마케팅까지 서민들의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한도 축소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갑작스런 한도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로 A카드사를 이용하고 있는 한 소비자는 최근 1400만원으로 설정해 놓은 한도가 7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다른 소비자는 1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자금검색에 무이자 할부 기간도 줄이고 있다. 6개월로 책정된 무이자 할부

3개월로 줄이거나 최대 2개월까지 축소하고 있다. 할부 축소는 카드사의 대표적인 디마케팅이다.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다.

카드론 또한 축소되는 추세다. 지난해 여전채 AA+(3년물) 금리상단이 연 6% 수준을 돌파하면서 조달 비용이 크게 뛰었다. 카드사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저신용 차주 대출을 비중을 줄이고 고신용자 중심의 마케팅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리빙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소비

능력과 신용등급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한도 축소를 단행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업황이 어려워져 마케팅 부문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유연성이 떨어지면 부실 우려가 커지는 것.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빙빙)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2208억원 증가했다. 처음으로 7조원대를 넘어섰다. 자금 길이 막힌 소비자들 리빙빙으로 몰린 것이다.

현금서비스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준 7곳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47조 7797억원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소비가 증가하는 12월을 포함하면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여전채 시장이 최근 진정세를 찾는 모습은 희망적이다. 지난 4일 여전채 금리는 연 5.33%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카드사와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의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스프레드 또한 축소하고 있다.

채권 시장 안정으로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줄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채량 은행계 캐피탈채 등 AA급 이상 우량 크레딧이 강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與 “이재명 방탄” vs 野 “국회 책무”... 임시국회 놓고 대립

與 “이재명 檢 출석 희석 전략”
野 “경제·민생·안보 등 위기
민주당 단독 개최할 생각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소집 요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인한 파장을 희석시키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북한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 대상 긴급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관련 규탄 결의문 채택 ▲정부조직법 처리 등이 시급하다며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1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곳곳이 말그대로 빨간불”이라며 “경제·민생·안보가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국민 불안이 하늘을 찌

르고 있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1월 임시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말 기가 차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110개 법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체라도 보고 우리가 막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이 오늘이라도 110개 법안을 내놓으면 봐드릴 것은 봐드릴 테니, 그런 목록도 내놓지 않고 어거지를 부려서야 되겠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

로 본회의를 개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단 소집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철저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국회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10일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날인 것을 두고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인질로 잡혀있었다 생각했는데 이쯤되면 민주당

도 이재명과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도 말아달라”며 “민주당도 범죄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이쯤에서 끝내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월 임시회가 민주당이 준비한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굳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해도 충분할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국가기밀을 까발리자고 한다”면서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이재명방탄 물타기용’ 본회의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안철수, 당 대표 출마 선언... “尹에 힘되는 후보 될 것”

“총선 승리 못하면 5년간 식물 정부
과학기술 강국 통한尹 정부 성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대해 “총선 압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로 규정한 안 의원은 “이번 당 대표 선출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 가지 밖에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서 진행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고, 윤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는 중이라며 “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변화를 상징하는 당 대표 ▲중도·보수·2030세대 통합 및 수도권 승리를 견

일할 당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 필요성을 강조한 뒤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자신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것”이라며 “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안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 변화 ▲여의도연구원 개혁 ▲당원 교육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가 경영책임을 맡은 여당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이끄는 게 여당”이라며 외부 정책 전문가 영입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역할 보강, 내부 인재 교육과 당원 연수원 설립 등으로 “전문성 지닌 정말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 축사를 보낸 윤상현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두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라는 것이고, 수도권 전장 최전선에서 지휘관이 지휘하는 게 옳다는 것에 공감해 축사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만 냈다.

다만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겨냥해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고 김치를 드시겠다는 그 말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이 최근 ‘3월이면 김장 김치가 설 수 있다’는 안 의원 발언을 두고 “김치냉장고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한 지적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정진석 “김만배 금전 거래, 언론 매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한민국 전체 대장동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한겨레 간부와 수석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점을 “언론 매수”라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인용,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비리에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한 점까지 언급한 정 위원장은 “한겨레는 금전거래라고 둘러대고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 수사 전이라도 대장동 검은돈이 한겨레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 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만배 씨가) 언론에 억단위의 금품을 살포했다면 정치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겠냐는 소문이 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내일(10일)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한다.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10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도 말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 “범죄 피의자 이 대표와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이쯤에서 끝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메시지도 연이 어 났다. /최영훈 기자

檢 출석 앞둔 이재명 “정부, 번데기 정권”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생과 안보 뿌리째 흔들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린다”며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막힌 ‘번데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요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고물가, 소비위축, 제조업 부진 삼중고로 경제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다”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며 “국민 걱정은 태산이지만 정부여당은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 팔렸다. 비상한 위

기의식도, 국민 고통 공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와 작전의 실패에도 거짓말로 참사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히 추궁하겠다”며 “민생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비상사국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 기조 전면 쇄신과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만 치닫고 있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 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athfinder@

尹 풍자 전시회

‘표현의 자유’ 논란

국회가 새해부터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시끄럽다. 국회사무처가 9일 새벽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를 준비하던 풍자 작품 80여점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작품 중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작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대·최강욱·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2023 굿바이전인 서울’을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와 굿바이전 조직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9일부터 13일까지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품을 철거한 국회 사무처를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소통·도전 화두로 쇠신”... 플랫폼 사업·ESG경영 ‘올인’

2023 금융의 위기와 기회

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비상한 아이디어에 주목할 것 잘 할수 있다는 것 보여주고파”

PCAF·SBTi·CDP 등 가입완료 ESG 경영 통해 먹거리창출 나서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NH디지털 얼라이언스 펀드 설립 이미지. /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는 미래의 금융서비스 선도를 목표로 올해 신사업 구상에 몰두한다. 이석준 신임 회장은 소통과 도전을 화두로 쇠신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물론 자회사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틀을 깨고 비상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을 주목하겠다. 세계 최초의 금융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시도하면 좋겠다”며 “농협은 불가능할거야”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임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나섰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넷플릭스(Ne tflix)와 챗GPT(chatGPT)를 비교하며 플랫폼 시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플랫폼 시장 진입을 예고한 만큼 그간 농협금융이 쌓아온 관련 기술력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되



농협금융과 협약은 맺은 ESG 금융 국제기구. /각 기구

고 있다.

◆ 플랫폼 사업 무게... “기술과 인프라 갖춰야”

지난해 농협금융은 IT익스퍼트(IT eXPERT) 대회를 개최했다. ‘IT 개발자 우대문화’를 중심으로 기술 강화를 예고한 것. 전 계열사 핵심 IT기술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농협금융은 은행업권 최초로 업무용 컴퓨터(PC)에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지키고 있는 만큼 보안에 있어 내실을 강화한 것. 안면 인식 기술은 편의성 제고와 합

계 보안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PC 로그인 시 비밀번호는 불필요하며 안면인식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편의성과 보안을 개선했다.

디지털 전략 투자(SI)펀드 또한 설립했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했다. SI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 결성했다. 혁신기술 스타트업과 예비유니콘, 플랫폼 사업자 등 다방면의 디지털 선도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한다.

SI펀드의 구상안에 따르면 NH벤처

투자와 NH투자증권이 공동(Co-GP)으로 맡고 농협은행과 NH농협캐피탈이 출자자(LP)로 참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동일규모 2호 펀드를 결성해 총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NH디지털 얼라이언스 펀드(가칭)’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외부 생태계와의 과감한 협업’을 강조했다. SI펀드의 취지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규제혁신 정책과 금융산업·기술변화에 대응 ▲새로운발전 기회 모색 등을 공유한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개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SI펀드 활용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 ESG경영·지속가능경영 지향

농협금융은 ESG경영을 통한 먹거리창출을 꾀한다. 협동조합의 취지를 살려 지속가능경영에 무게를 둘 필요성이 높은 것. 농협금융은 탄소중립 달성과 ESG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국제협약인 ‘탄소 회계 금융의 파트너십(PCAF)’,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인터넷 제로 은행 동맹(NZBA)’ 가입을 완료했다. ‘금융의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농협금융은 ESG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내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위

원회’와 지주 회장 주관 협의회의의 공동체 하에서 단계적인 국제협약가입을 추진했다. 전사 차원에서 진행 중인 농협금융 기후관련 재정공시 태스크포스(TCFD) 이행 고도화 등을 진행했다. 이에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목표 수립 ▲탄소중립 달성 전략 마련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의 3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실제로 농협금융은 지난해 TCFD 지시선언 이후 내부탄소배출량 측정을 완료하고 TCFD 이행 로드맵 수립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회장은 “함께 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 하에 범농협이 함께 하는 시너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농협금융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 농협금융, 자회사 소통 강화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자회사와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며 임직원들의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실패를 성공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것.

그는 “중앙회, 경제지주 등 내부사업 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혼자만으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금융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농협금융이 농협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촉매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계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혹한기 KB만의 핵심경쟁력 활용 회복탄력성 높여야”

윤종규 KB금융 회장, 경영전략회의 ‘R.E.N.E.W 2023’ 중심 목표 설명

“앞으로 다가올 혹한기에도 KB만의 핵심경쟁력을 활용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6일 ‘2023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는 지주 경영진과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등 12개 계열사 경영진 등 총 27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회장은 2023년 경영전략방향인 ‘R.E.N.E.W 2023’을 중심으로 경영진이 최우선적으로 염두해야 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R.E.N.E.W 2023’은 ▲핵심경쟁력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2023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및 회복탄력성 강화(Reinforce the Core&Resilience) ▲글로벌&신성장동력 확장(Expansion of Global & New Biz) ▲금융플랫폼 혁신(No. 1 Platform) ▲지속가능경영 선도(ESG Leadership) ▲인재양성 및 개방적 창의적 조직구현(World class Talents &

Culture) 이다.

윤 회장은 우선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대비해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술개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부리로 깃털과 발톱을 뽑아내 환골탈태하는 것처럼 KB도 다가올 혹한기

에 KB만의 핵심경쟁력을 활용해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끈덕지고 담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전환과 그린 전환 등 새로운 시대적 기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KB스타뱅킹, KB페이(Pay), KB월렛(Wallet)은 물론 부동산, 헬스케어, 모빌리티 영역을 강화해 No.1 생활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자”고 했다.

윤 회장은 “KB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우리의 미션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디지털 기반 금융혁신 전문영역 확대 할 것”

최유삼 신용정보원장 취임

“디지털·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양질의 신용정보를 확충해 전문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최유삼(사진) 신용정보원장은 9일 취임식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최 원장은 기업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금융 인공지능(AI)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신용정보를 확충해 전문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진화하는 보안위협에도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신용정보원 IT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에 주력하겠다”며 “임직원 모두가 디지털 전문가로 탄탄한 업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광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장·금융소비자과장·자본시장조사단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 8일까지 3년이다. /사유리 기자 yul115@

월간 카드승인액 76.4조... 1.92% ↓

여신금융협회, 국내여행 줄어두고
일 하늘길 열려 해외여행객 증가세

지난해 11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전월(10월)과 마찬가지로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본으로 향하는 하늘길

이 열리면서 해외여행객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인 내수 시장은 움츠러든 모습이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92조3000억원으로 10월 93조9000억

원 대비 1조6000억원(1.7%)감소했다.

11월 개인카드 승인 금액은 76조4000억원이다. 10월 77조9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1.92%) 감소했다. 법인카드 전체 승인금액은 10월 16조1000억원에서 11월 16조원으로 1000억원(0.62%) 줄었다. 한 달 사이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소비가 축소된 모습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통상 11월과 10

월은 유사한 소비 양상을 나타낸다. 휴가 시즌 종료 이후 별다른 행사나 축제 등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분류별카드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여행은 축소된 반면 해외여행객은 증가했다. 휴가 기간이 모두 끝났지만 일본이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행객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산 기자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글로벌 No.1 전기차 윤활유부터
 친환경 용기에 담은 ZIC ZERO까지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하는
 SK엔무브와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배터리3사... IRA 변수 등에 긴장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예상 전기차 판매 증가세로 수요 늘어

美 IRA 요건 적용시기 3월로 연기 중국, 美 시장 접근 여지 많아져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도 촉각

공급망 위기와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호실적' 주자로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올해 1분기부터 배터리 업계가 마주할 대외적 상황이 산적한 상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은 이달 내에 잠정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실적을 정리하며 올 한해 '도약'할 준비를 할 예정이다.

9일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43.4% 증



SK온 배터리를 장착한 포드 차량

/SK이노베이션

가한 25조5986억원, 영업이익은 57.9%가 늘어난 1조2137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4분기만 보면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1.6%, 전년 동기대비로는 92.3%가 증가한 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54.5%가 줄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 보다는 213.6%가 개선된 2374억원을 나타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SDI도 55.2% 늘어난 매출로 4분기 매출액 5조9209억원, 영업이익은 120.6% 늘어난 5862억원으로 예측됐다.

모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을 두고 있는 SK온은 비상장사로 추정치가 따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고대하던 흑자전환을 꿈을 이룰 시점이 도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터리 3사 모두 생산체제를 구축하느라 투자한 결과를 차츰 거두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율이 세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 배터리 수요가 급해진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러브콜'도 많아질 상황이다. 이로 인한 배터리 업계의 실적은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분기는 배터리 업계가 넘어야 할 대외적인 변수들도 명확해지는 시기다. 미국이 IRA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

건 적용 시기를 3월로 연기하면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다시금 접근할 여지가 많아졌다. 당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중국배터리기업 뿐만 아니라 소재까지 규제하는 방안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호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작년 말 나온 백서에는 이 부분이 완화됐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항이 수정됐다.

원래는 북미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광물을 써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북미나 미국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 중국업체라도 미국에

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법안들인데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중국이 미국 IRA를 피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EU(유럽연합)에서도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법안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금속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광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EU의 중국·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공급망 다각화 작업 중이기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법안의 세부내용 발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세부 내용이 나와야 업계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며 "국내 배터리 3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쉽지만은 않지만, 글로벌 점유율 높이기 위한 완성차 고객사 확보와 기술력 향상,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납품대금 2.3조 조기 지급

설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95억어치 구매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설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생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 3766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약 95억 원을 구매해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오일에너지·현대위아·현대트랜시스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

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7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고금리 기조 속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4402억원, 1조8524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엔 높은 금리에 따른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현대자동차가 협력사에 납품대금 3531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고금리로 힘든 상황 속 협력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약 95억 원을 구매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CES2023 LG이노텍 부스에 관람객들이 몰려있다.

LG이노텍, CES 성공 데뷔... 2만 인파 몰려

일반관람 오픈 부스 첫 운영 전자 신기술 16종 대거 선보

LG이노텍이 첫 CES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LG이노텍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3에 오픈 부스를 운영하며 2만명 이상 관람객을 맞이했다.

LG이노텍이 오픈 부스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비공개 형태로 특정 고객사에만 전시관을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관람객에도 다양한 혁신 제품을 소개했다. LG이노텍은 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이노텍은 모빌리티 분야 전시가 집중된 웨스트홀에 부스를 마련했다. 광학솔루션과 기관 소재는 물론, 전장 부품 신기술 16종을 대거 선보였다. 부스 중앙에 신기술을 담은 자율주행차량 목업을 통해 직관적으로 소개하며 관람객들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다.

특히 LG이노텍 핵심 기술이 자율주행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에 관심이

높았다. 카메라 모듈과 레이더 모듈 장점을 융합한 '센서 퓨전'이 대표적. 완전자율주행시대를 주도할 기술 경쟁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체험형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직접 블록을 쌓아 FC-BGA 기판을 완성하며 LG이노텍의 고다층·고집적 기판 기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한 공간 등 어려운 기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잠재 고객 확보 성과도 있었다. LG이노텍에 따르면 고객사 미팅 건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스 현장에서 100건 이상 미팅을 성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민준상품전략담당(상무)은 "평소 볼 수 없었던 스마트폰, 자동차 속 다양한 부품들을 밖으로 꺼내 전시함으로써, 미래 혁신 제품은 부품이 좌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철용 사장은 "이번 CES는 LG이노텍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소재부품 선도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제주항공, 국내선 여객 점유율 18.2%... 3년 연속 '1위'

지난해 648만여명 수송

제주항공이 지난해 국내선에서만 648만여명을 수송해 점유율 18.2%를 기록하며 국내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제주항공 측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실시간 통계를 활용해 지난해 국내선 여객 수송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인 648만2588명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송객수인 645만9000명 보다 2만3000여명이 많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보다 160만명이 높은 수치다. 지난 2017년 464만명이 제주항공을



제주항공이 국내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제주항공

이용한 이후 탑승객이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432만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1년에는 645만명, 2022년 648만명대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제주항공 국내선 탑승객 중 제주~김포/부산/청주/대구 등 제주기점 노선에 543만여 명이 탑승해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다. 김포~부산/대구 등 내륙노선에는 약 16%인 104만여 명이 탑승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전체 탑승객의 44%가량인 289만여 명이 제주~김포 노선을 이용했고 김포~부산 노선(83만여 명), 제주~부산 노선(77만여 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얼마 전 한·일 노선 수송객 수 1위에 이어, 국내선에서도 3년 연속 여객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수주·인력난 숨통 트인 조선업계, 올해 흑자전환 기대감

조선3사, 2년연속 수주 초과 달성
올부터 본격 선박인도·대금 결제
외인 근로자 투입 절차 간소화 등
정부도 인력난 해결위해 적극 나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최근 2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조선업계가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면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실적 개선의 초석을 다져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인도와 대금 결제가 시작되는 점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조선 3사는 지난 2년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2~3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조선해양은 총 197척, 239억5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74억4000만달러의 137.3%를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총 46척, 104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89억달러의 117%, 삼성중공업은 총 49척, 94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88억달러의 107%를 달성했다.

또 올해도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주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계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인력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선업계에 외국인 근로자를 조기 투입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 조선업은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회복하며 수주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생산 인력은 올해에만 1만4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으로 행정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도 2년간 30%

로 한시적으로 늘렸다. 현재는 내국인 근로자 수(3개월 이상 재직한 상시 근로자)의 20%까지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또 조선 분야와 관련된 국내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할 방침이다. E-7-3비자는 일반기능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도장공·전기공 등이 해당한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에 대한 연간 쿼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400명 규모로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

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의 기능교육을 이수했다면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조선업계의 실적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 인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3사는 철강업계와 지난해 하반기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원가량 내리는 데도 합의했다. 이런 기조는 올해도 이어져 2021년 톤당 130만원에 달하던 후판 가격은 100만원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조선업계는 일반적으로 후판이 원가에서 30%를 차지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 물량이 2년 뒤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출은 본격화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선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에 취업하는 국내 인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동과 조심하세요"

목적성 안부대화 기능 도입

"오늘 한파경보가 내렸어요. 동과 조심하세요."

네이버는 '클로바 케어콜'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 문자를 기반으로 전화 수신 가구의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목적성 안부 대화 기능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AI 안부 전화 서비스다.

클로바 케어콜은 '기상 재난' 주제의 목적성 대화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향후 다양한 재난 알림 및 돌봄 공지 안내로도 목적성 대화 주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기상 재난 안부 대화는 클로바 케어콜이 전화를 거는 시점에 한파, 대설, 폭염, 호우 등 기상 재난 상황이 발생해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경우, 해당 기상 상황을 반영한 목적성 안부 대화를 일상 안부 대화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방식이다.

높은 대화 만족도를 바탕으로 사용자 의 더욱 적극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목적성 대화'를 위해, 클로바 케어콜에는 자체 개발한 '목적형 자유 대화' 기술이 적용됐다. /채윤정 기자

한국조선해양, 유럽 연구기관과 연료전지 개발 나선다

프라운호퍼·엘코젠과 MOU 체결
SOFC·수전해 시스템 개발 진행

HD현대의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최대 연구기관 및 연료전지 부품 제조사와 함께 선박·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및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확보에 나선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3에서 독일 프라운호퍼, 에스토니아 엘코젠과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및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프라운호퍼, 엘코젠과 함께 선박 및 발전용으로 쓰이는 대용량 고체연료전지 시스템의 상세 설계와 시제품 테스트를 시작한다. 한국조선해양과 프라운호퍼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연료전지시스



한나 그라노-파브리티우스(왼쪽부터) 엘코젠 최고사업책임자, 김성준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 알렉산더 미카엘리스 프라운호퍼 연구소장이 8일(현지시간) CES 2023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HD현대

템의 기본 설계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조선해양은 프라운호퍼의 수전해 기술과 엘코젠의 연료전지의 핵심부품 제조 능력을 활용,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프라운호퍼는 독일 전역에 72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 응용 연구 개발 기관이다. 고성능 세라믹 응용 기

술을 연구하며,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및 수전해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엘코젠은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셀과, 셀의 집합체인 스택을 제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암모니아, 메탄올, 바이

오연료 등 다양한 연료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다. 발전 효율이 높고 고온(600~1000℃) 운전으로 생성되는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어 선박엔진 및 열병합발전 등에 적합하다. 여러 방식의 연료전지 중 현재까지 가장 진화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독일 컨설팅 회사인 톨랜드 버거에 따르면 올해 4억6000만달러 규모인 고체산화물연료전지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7% 성장, 약 71억2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준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원장(부사장)은 "HD현대그룹은 친환경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제조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카카오브레인 AI 이미지 모델 '칼로' API로 공개

초거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미지를 손쉽게 생성, 편집, 변환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브레인은 '카카오디벨로퍼스'에서 카카오브레인의 한층 더 발전된 AI 이미지 모델 'Karlo(칼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디벨로퍼스'는 웹 서비스, 모바일 앱, 기타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및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개발자 전용 웹사이트다. 카카오의 AI 기술, 카카오톡 접점이 필요한 파트너나 개인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카카오톡 기술 혹은 무료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현재 소셜통합, 비즈니스,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API를 제공 중이며 다양한 산업의 기업·단체·개인이 활용 중이다.

'칼로 API'는 1.8억 장 규모로 확장된 텍스트-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해, 이용자가 입력한 제시어의 내용을 이해한 후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이다. 특히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 및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해 툴의 활용도를 높였다.

/채윤정 기자 echo@

대우조선해양, 탄소강관 용접 협동로봇 개발

개발·선박 건조 현장에 적용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배관 조정관을 용접하는 협동로봇을 개발, 선박 건조 현장에 적용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탄소강관 용접 협동로봇을 개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협동로봇은 선박 배관

조정관을 용접하는 로봇으로 협동로봇을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는 30kg 넘는 토치 작업대를 작업자가 직접 옮기고 수동으로 위치를 맞추며 용접을 했다. 특히 용접 위치를 바꿔야 하면 멈춰다가 또다시 작업을 해야하는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2019년부터 개발을 진행, 가까이에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협동로봇을 만들었다.

이번 협동로봇을 적용한 뒤로 용접 시간을 제외한, 작업준비 시간이 60% 가량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의 피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인증 기관인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심사를 통해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안전인증'도 획득해 협동로봇이 안전펜스나 안전센서 없이도 안전인증을 받아 현장 적용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는 선박 배관 조정관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용접 협동로봇을 작업자가 조작하고 있다.

으나, 일반배관에도 적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바닥 찍고 올라오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 받는 건설주

건설업종지수 올 들어 반등세 급락했던 작년대비 분위기 상반 현대건설 연초 보다 8.17% 올라 건설업종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건설업 관련 종목들이 올 들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5포인트(0.45%) 오른 77.99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 73.60에 장을 마감했지만, 올 들어서만 4.39포인트(5.96%) 오르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큰 하락세를 보였던 건설업종 종목은 최근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지난해와는 상반된 분위기다. 건설업종 지수는 지난해 연초 115.08에서 시작해 연말(73.60)까지 1년간 36.04% 급락했다.

〈건설업 종목 주가 현황〉

종목명	2022년 증가	23.1.9 증가	등락률
현대건설	34900원	37600원	7.74%
GS건설	21150원	23150원	9.46%
대우건설	4180원	4505원	7.78%
DL이앤씨	33750원	36400원	7.85%
HDC현대산업개발	10000원	10550원	5.50%

/한국거래소

이는 지난해 코스피 내 대표지수 중 세 번째로 큰 하락률이며, 코스피 지수의 연간 하락률(24.89%)과 비교해도 11%포인트 이상 폭이 컸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가 이날까지 5.09% 오른 가운데 건설업지수는 5.96% 오르면서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건설업종 지수에 포함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7% 이상 오르면서 건설업종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 먼저 코스피 건설업종 내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현대건설의 경우 이날 중 3만7600원

에 장을 마치면서 연초 대비 8.17% 올랐다. 뒤 이어 ▲GS건설 2만3100원(9.22%) ▲대우건설 4500원(7.66%) ▲DL이앤씨 3만6400원(7.85%) ▲HDC현대산업개발 1만5500원(5.50%) 등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집값 급등기부터 도입해 온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주 강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 등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를 해제했다. 여기에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규제를 대폭 줄였으며,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 등을 함께 내놨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향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록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어렵더라도 급매물이 소화되고 대규모 미분양을 일부 해소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주가급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실적 하향조정세도 완화되면서 향후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실적 하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 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현금 혜택... 수수료 할인... 주식쿠폰

증권가, 새해 신규고객 유치 마케팅 '다채'

KB, 신한, 한화, 키움, 유진 등 주요 증권사들이 새해를 맞아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 수수료 혜택과 국내 주식 쿠폰을 제공하는 '웰컴 2023 신규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생애 처음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S-라이트 플러스, 은행 제휴 S-라이트 계좌를 개설하면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 평생 혜택과 최대 7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신한 알파 앱에서 비대면 계좌 개

KB, 해외주식 쿠폰 2만원권 증정
신한, 온라인 국내수수료 평생 무료
키움, 일정금액 입금시 현금 혜택
한화, 해외거래 수수료 할인 제공



/유토이미지

설 후 이벤트를 신청하면 주식 쿠폰 2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주식 새해 선물 이벤트를 진행한

다. 회사는 온라인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 1만원을 지급하고, 계좌 개설 당월에 국내 주식을 500만원 이상 거래(매수, 매도 포함)한 고객에게 3만원을, 계좌 개설 당월을 포함한 3개월 연

속 월 1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신규 고객들은 국내 주식 거래 시 0.003639%의 거래수수료(코스피, 코스닥)를 평생 우대 혜택으로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신규고객과 휴먼고객을 대상으로 첫 새해 이벤트 국내외 주식 '투자의 첫 수'를 진행했다. 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모바일(SmartM)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회사는 해외주식 이벤트의 경우 생애 최초 해외주식 거래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신청 당일부터 1년 동안 미국 주식 0.069%, 중국·홍콩 주식 0.15%의 모바일(SmartM) 거래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키움증권은 새해를 맞아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 쿠폰 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2월 말까지 진행한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

상 입금하면 최대 3만원 현금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해외주식을 최초로 거래하는 개인 고객들에게 해외주식 쿠폰과 함께 거래 금액에 따라 해외주식을 제공하는 '2023년 신년 맞이 복주머니 증정' 이벤트를 3월 10일까지 진행한다. 회사는 신청 고객 전원에게 해외주식 쿠폰 2만원권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1개월 동안 해외주식 거래 금액 100만원·500만원·1000만원·5000만원 이상인 구간에 따라 1만원·2만원·3만원·5만원 상당의 해외주식이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랜덤으로 증정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에는 증권사들이 매년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왔다"며 "특히 최근 이벤트들은 오프라인 고객보다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은 거래가 많고 향후 연금 자산관리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실생활서 찾은 알짜 저평가株... 이미 실적개선중"

株라쿨라의 종목

하이로닉, 휴먼티 수요 증가 수혜
가온전선, 구리가격 상승기 진입
디지털대성, N수생 인한 고성장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대표이사가 올해 실생활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하이로닉(휴먼티 디바이스) ▲가온전선(미국 전선, 통신 인프라 확대) ▲디지털대성(독서 토론 논술)을 꼽았다.

9일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이사는 "실생활을 통해 얻은 종목은 어려운 내용이 없고, 유행과 인기 체감을 통해 매도 시기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며 "각 종목은 모두 실생활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이미 실적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 오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부미용의료기기제조·판매기업인 하이로닉은 마스크 의무화 해제로 본격 수혜를 입을 것이라 분석이다. 최 대표는 "하이로닉은 올해 미국, 중국 등 해외 매출비중 확대로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2020년 홈케어 피부관리 기기 '홈세라'를 출시했는데, 홈세라는 피부 관리숍에서 전문 시술을 받은 듯한 관리가 가능해 수요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전력케이블및 통신케이블제조·판매 기업인 가온전선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송전선의 70%가 25년 이상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미국 수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전선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가온전선 수익에 가장 긍정적인 환경은 전기동(구리) 가격이 완만한 상승기에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대성은 초중고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초중등 사업으로는 독서논술 콘텐츠(한우리)가 대표적이며, 고등 사업에는 온라인 강의(대성마이맥), 기숙학원(대성기숙학원) 등을 영위한다. 베트남 등 국제학교 설립으로 중장기 성장동력도 확보했다.

최 대표는 "올해부터 정시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N수생 역대 최대를 예상해 대입 전문 플랫폼 '대성마이맥'의 고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 공시방식 개선

금감원, 비대면·대면 이자율 구분
산정방식 등 투자자 확인사항 개선

증권사의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공시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용거래용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는 매월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 계좌개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공시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이자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를 신설한다.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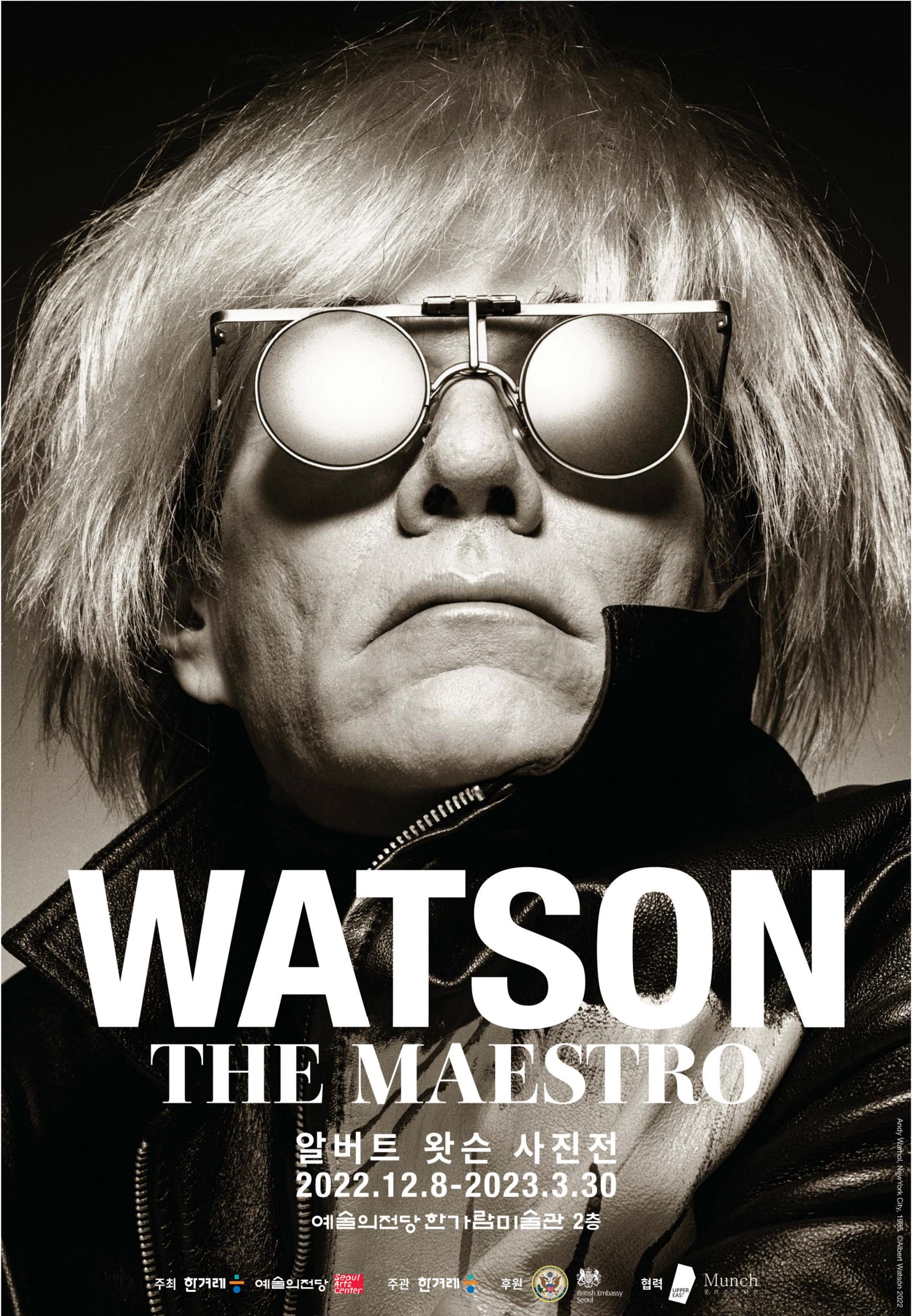
아울러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그간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이자비용도 안내된다.

투자자가 100만원을 용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하는 등 구체적인 용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고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작성한 파일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WATSON THE MAESTRO

알버트 왓슨 사진전
2022.12.8-2023.3.3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주최 **한겨레**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주관 **한겨레** 후원   협력  **Munch** 프리숏뮤지엄

Andy Warhol, New York City, 1965 © Albert Watson 2022

연 6.6만톤 규모... SK지오센트릭, 세계 첫 재활용 기업 진화

英 플라스틱 열분해 기업과 협력
울산 열분해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열분해유 한층 높은 품질로 개선

SK이노베이션 친환경 화학사업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이 영국의 플라스틱 열분해 전문 기업과 협력하면서 세계 최초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으로 거듭난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에 주목함에 따라 이번 SK지오센트릭의 협약은 SK그룹이 목표하는 '넷제로'에 강력한 부스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SK지오센트릭은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3 현지에서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와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내 열분해 공장 설립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들은 CES현장에서 SK기자단을 만나 이번 협약으로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SK그룹차원에서 진행하게 될 친환경



이종혁 SK지오센트릭 그린산업개발팀장이 CES2023 테크데이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

경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SK지오센트릭은 플라스틱 밸류체인 전반의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 리사이클링 기반의 화학회사로 한단계 진화하고 있다. 간단하게, 석유로 만들어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석유

를 뽑아 내고 버려진 플라스틱에는 기술력을 더해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내

는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형태다.

실제, 이번 CES2023에서 차량용 경량화 소재인 UD Tape(Unidirectional Tape)는 플라스틱 섬유 형태의 강화재를 더한 고기능 복합 소재를 선보였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인 CES에서 친환경,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핵심 기술 확보를 완료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울산ARC 조성이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SK지오센트릭 그린산업개발팀장은 "울산에 플라스틱 에너지의 선진열분해 기술을 도입해 오는 2025년까지 아시아 최대인 연6만6000톤(폐플라스틱 처리 기준) 규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보유 기술로 열분해유 후처리 공장도 동시 조성해 열분해유를 한층 높은 품질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라스틱 에너지 열분해 기술을 통해 생산한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우 아이스크림과 화장품 용기로 쓰일 만큼 높은 품질과 친환경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기업과의 협력이 SK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SK그룹이 목표하고 있는 '넷제로', '그린투카본'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실제 김준 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우리 주력은 화학과 에너지다. 이에 앞으로 환경 비즈니스로 완벽하게 전환할 계획이다. 오래 걸리더라도 화학과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접목할 것"이라며 "결국 제로카본으로 에너지를 바꾸고 리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에 도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의 공식 명칭을 '울산 ARC(Advanced Recycling Cluster)'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미국 퓨어사이클사(Pure Cycle Technologies)와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PP) 추출 기술(Ultra PP extraction technology)과 관련해 협력을 하고 있으며, 680억원 규모 지분투자에 이어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독점판매권과 중국 및 동남아 사업권도 확보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tna@metroseoul.co.kr

국민연금 지분 감소... 이강철 사외이사 사퇴... 구현모 연임 '안갯속'

(KT 대표)

KT 최대주주 '국민연금' 지분 9.99%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연임 반대"

'국민연금 지분 감소', '이강철 사외이사 사퇴' 구현모 KT 대표(사진)의 CEO 연임에 새로운 변수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먼저 구 대표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지분 감소다.

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KT 주총 때만 해도 12.57%였지만, 6월 11.23%, 11월 10.35%로 떨어진 뒤 올 초 9.99%까지 하락했다. 10% 아래로 떨어진 국민연금 지분이 구 대표 연임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대 주주를 합하면 13.37%로 국민연금 간 지분격차는 더 벌어진 상태다.

KT와 현대차그룹은 KT 자사주 약 7500억원을 현대차 약 4456억원, 현대모비스 약 3003억원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현대차그룹이 다른 기업과 지분을 교환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KT와 신한은행도 지난해 1월 4375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공동 플랫폼 신사업, 전략적투자(SI) 펀드 조성 등 4가지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지분율 57%, 외국인 지분율이 40%인 점도 구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호지분으로 분류된 2·3대 주주들이 국민연금과 표결을 펼치게 되면 구 대표의 연임은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두 기업은 국민연금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는 만큼 KT에 힘이 되어 줄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 현 정권에서도 구 대표 연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더 그렇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수는 이강철 KT 사외이사 사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대통령 정부특보를 지낸 이 사외이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부터 KT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업계

에선 "이 사외이사가 구 대표의 연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 정권은 KT 이사회에 친노·친문 인사가 많이 포진돼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우 사외이사도 노무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내 전 정부 인사로 꼽히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 대표 연임 반대도 결집 중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횡령·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구 대표 연임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구 대표가 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KT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를 연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KT 노조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구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KT 노조 관계자는 "구 대표는 10여년 만에 KT 출신 CEO로서 3년 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임기간 동안 대내외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창출했다"며 구 대표의 연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구 대표를 대체할 인물 하마평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20대 국회의원인 과기정통위에서 활동한 김성태 전 의원과 KT 전무 출신으로 삼성 SDS 대표를 지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흥원표씨 등이 다.

/채윤정 기자 echo@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출시... 품질·내구성 '자신감'

차체 등 보증기간 업계 최고 수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뛰어난 연료효율성을 갖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QM6와 아시아의 스포티지가 국산 SUV LPG 모델로 주목받아 왔지만 쌍용자동차가 LPG와 가솔린을 결합한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나섰다.

쌍용차는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LPG 모델'을 선보이고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LPG 연료만을 사용하는 경정 모델과 달리 가솔린과 LPG 연료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바이퓨얼(Bi Fuel) 방식을 적용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객은 가솔린 대비 연료비가 30%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 LPG 차량에 대해 갖고 있는 저출력·저연비·겨울철 시동 문제 등의 선입견들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토레스의 우수한 정속성을 자랑하는 친환경 1.5 l GDI 터보 가솔린 엔진(e-XG Di150T)의 최고출력(170마력)과 최대토크(28.6kg·m)의 95% 이상 강력한 성능(165마력)을 발휘하며, 주행 시 LPG 연료를 모두 사용하면 가솔린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충전소를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까지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솔린(50 l)과 LPG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

(58 l)의 연료탱크를 완충하면 최대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충전(주유)을 자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겨울철 영하 날씨에도 시동 시 LPG 연료가 아닌 가솔린을 사용하여 시동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토레스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은 국내 최고의 LPG 전문기업인 로턴(ROTURN)과의 기술 협약의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도넛탱크.

로 완성도를 높여 세계 최대의 LPG 시장인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양보다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 쌍용차는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하이브리드 LPG 시스템의 무상 보증서비스 기간을 경쟁모델을 넘어서는 3년/무제한km로 운영한다. 차체·일반부품 및

엔진·구동전달부품 등의 보증기간은 5년/10만km로 동급 업계 최고 수준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사양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TL53130만원 ▲TL7341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갑질’ 브로드컴, 200억 규모 자체 시정방안 제시

공정위,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반도체 분야 상생기금 200억 조성
사측 “부품 선택권 제한 없을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기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의 자체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한국지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피심의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처

벌보다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조정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 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이 해당 기간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7억5000만달러(9369억7500만원) 수준이다. 브로드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삼성전자는 수십억원 규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우선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자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정방안의 이행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운영하며,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 등을 포함한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익명으로 시정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등 내부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브로드컴과는 독립적으로 반도체전문인력 양성(77억원), 중소기업자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LTA) 기간 동안 주문해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모델에는 2021년 8월 출시한 ‘갤럭시 Z플립’, 2022년 2월 출시한 ‘갤럭시 S22’ 등이 포함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조선업 신규 국내인력 유입 촉진”

장영진 1차관 조선업 현안담회
마이스터고·지역대학 등서 특강
채용 설명회, 인력양성사업 추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에 해소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뿐 아니라 국내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작업환경과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 인력 현안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국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생산교육과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채용지원금 등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생산인력을 적기에 공급한다.

또 조선협회 등과 지역별 채용설명회, 마이스터고·지역대학 산업특강 등 유치 홍보활동을 통해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조속히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장 차관은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작업환경과 임금구조 등 개선을 통해 ‘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도 저가수주 방지, 원·하청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등 관련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국내 조선산업이 AI(인공지능)·로봇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에도 자발적으로 임금구조 개편, 생산 스마트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조선업은 개선된 수주실적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생산인력 등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작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해 인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비자발급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도입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고졸 이상의 외국인 연수생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단순 노무인력(E-9) 등이 조선업으로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가구당 14만5000원→15만2000원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추가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오른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은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하절기 9000원, 동절기 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하절기 4만원, 동절기 15만2000원)으로 51%(6.5%) 인상된 수준이다.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캠퍼스 39개’ 폴리텍대… 창원·바이오·강릉 취업률 높아

지난해 취업성과 우수 캠퍼스 발표
창원 캠퍼스, 전 학과 취업률 강세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39개 캠퍼스 중 창원·바이오·강릉 캠퍼스와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취업 성과가 높은 곳으로 선정됐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창원캠퍼스의 경우 금형, 기계, 산업설비, 전자, 소재 등 뿌리기술부터 신산업 분야까지 모든 학과의 취업률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9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대학정보공시(2년제 학위과정)와 고용보험가입(직업훈련과정) 기준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을 종합 반영해 이뤄졌다.

취업 우수학과로 선정된 14개 학과는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항공 정비·수리·개조(MRO) 등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전공이 주를 이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기술인재 양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2년제 학위과정 취업 우수학과는 유지취업률 100%를 기록한 익산캠퍼스 나노측정학과 바이오캠퍼스 바이오품질관리과·바이오나노소재과, 춘천캠퍼스 미디어콘텐츠과 등 4개 학과와 인천캠퍼스 건축설계과, 아산캠퍼스 자동차기계과 등 총 7개 학과가 꼽혔다.

이 중 바이오캠퍼스는 지난 2006년 개교한 국내 유일 바이오 특성화대학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1호코로나19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개발의 숨은 주역으로 졸업생 32명이 주목받기도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1년 미만 국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과,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 등 7개 하이테크 과정 운영 학과가 선정됐다.

특히,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는 하나금융티아이 맞춤 인력양성반을 운영해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아울러, 폴리텍대는 올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분야 10개 학과를 신설해 모집 중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까지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합격 및 등록과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인천공항공, LA공항과 교류 활성화 ‘맞손’

국제산업 트렌드 논의 등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월드 에어포트(LAWA)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LA공항은 북미 공항 중 가장 큰 규모의 여객과 환승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 인천공항과 LA공항은 지난 2001년 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국제 항공수요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해왔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공식적인 교류가 전무해짐에 따라 양 공항은 이번 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양 공항 간 정보·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공항공관 정책 및 국제산업 트렌드 정기적 논의 ▲정보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 공항은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관심사 발굴 및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지방대 지원 권한 지자체로... 교육계 “정부 책임 덜기” 지적

교육부, 지방대 권한 지자체 이양
선거직 지자체장 관리·감독 우려
2025년까지 견제 장치 등 방안 마련

교육 당국이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단위로 이양한다. 교육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직인 만큼 재정 관리·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뤄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025년까지 교육부의 지방대 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이번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맞춰 대학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지방대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컸던 만큼 향후 더욱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자체는 선거직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인 만큼 공정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다.

임은희대교연 연구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일종의 권력자”라고 일갈했다. 지자체장은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바뀔 여지라도 있지만 사립대학 운영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 내 관계나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

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는데 사실상 예산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이용해 의도한 만큼의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그럴 만한 권한이나 역량이 없

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지자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땀겨울 지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평화로 연결되느냐의 관점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산학협력과 재정적인 협력 지원에 한해서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부실 운영 대학의 지역 떠남기기로 귀결될 우려를 제기했다. 연맹은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선행돼

야 할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학벌 문화와 입시정책의 변화”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 양극화 현상, 학령기의 절대적 인구 감소 등의 총체적인 사회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다가 교육부가 다 떠안는 형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방대학 재정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추진에 돌입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대학들의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권한을 맡게 될 경우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운영체계 설치가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담 기구가 맡게 될 것”이라며 “해당 기구를 만들고 입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시범 지자체 5개를 선정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2025년까지 견제할 장치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가정통신문, 교육청서 학부모에 직접 보낸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업무부담 최소화
연간 사업사전 일괄 안내제 시범운영

앞으로는 가정통신문 발송방법을 개선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각종 안내사항을 학부모에게 보다 빠르게 전달하고, 학교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발송방법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 환경에 따라 서울 소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알림서비스(App)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대 흐름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학부모에게 공통 안내 가능한 가정통신문을 교육청이 일괄 안

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학교 전달 사항에 대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시행하면, 각 학교에서는 내부 결재 후 각각 홈페이지와 알리미앱에 등록해 왔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이 과정이 간소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 추진하면서 부서간 업무 협력을 통해 학교 공통·반복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교원연구비의 교육청 일괄 납부를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스쿨넷(인터넷) 통신요금을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개선해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공문서 감축 방안으로 학교 관련 외부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2023년부터 ‘자치구의 학교 관련 연간 사업

사전 일괄 안내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에 대한 2022년 연말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정책 만족도는 70.5%(전년대비 3.6% 증가),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 확대 의견은 96.1%(전년대비 2.7% 증가)로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정통신문 교육청 일괄 발송 등 학교 업무경감 효과는 서울의 전체 학교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문서 감축 방안 등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과학기술대-경상국립대-연암공대-인천대 LINC 3.0 사업단이 업무협약식에서 박근 서울과학기술대 LINC 3.0 사업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 AI·로봇 네트워크 협업 MOU

경상국립대-연암공대-인천대 협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단이 지난 5일 서울 공릉동 교내 테크노큐브동 큐브홀에서 ‘AI·로봇 공유·협업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는 서울과학기술대를 비롯해 경상국립대, 연암공대, 인천대가

함께했으며, 이후 권역 및 대학 간 AI·로봇 협의체를 조성해 업무교류 및 산학협력 활성화,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LINC 3.0사업의 ▲수요맞춤 성장형 ▲협력기반 구축형 ▲기술혁신 선도형 간 주요 인프라를 공유하고, 업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과 특화 분야 및 신산업 혁신 선도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늘봄학교’ 시범운영... 2026년 전국 확대

교육부, 4개 시·도 200개교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4개 시·도 2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9일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2025년에는 학교 인력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후 돌봄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학초조기 학교로 인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며, 고학년에게는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틈새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을 위해서는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침돌봄·저녁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수요에 따라서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구미대, 12년간 평균 취업률 ‘전국 1위’

1년간 유지취업률 82.1%

구미대학교가 2010년부터 평균 취업률에서 12년간 전국 1위(졸업생 1000명 이상)를 지키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6일 발표된 전국 전문대 취업률에서 구미대는 77.4%(졸업생 1989명)를 기록해 졸업생 2000명 내외 규모의 전국 전문대에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시된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71.3%이다.

이로써 교육부가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발표한 2010년부터 최

근까지 구미대는 12년간 평균 취업률 80.5%를 기록했다. 이는 특수목적, 기능 대학 등 졸업생 1000명 이하 규모를 제외한 전문대에서 전국 취업률 1위의 기록이며, 평균 취업률이 80%가 넘는 대학도 구미대가 유일하다. 즉, 졸업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꾸준히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취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1년간 유지취업률에서도 구미대는 82.1%를 기록해 졸업생 2000명 내외의 전국 전문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74.8%이다.

/신하은 기자

BALL

OFFICIAL  STANDARD
Since 1891

Since 1891, accuracy under adverse conditions



혁명적인 마이크로
가스 튜브

크로노그래프

AMORTISER® 특허받은
충격 방지 시스템

15개의 맥동으로
눈금이 매겨진 맥박계

4,800A/m 항자성

5,000Gs 충격 저항

시간, 심박수를 어떠한 충격에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때, 이 다재다능한 시계를 믿으십시오. 로드마스터 레스큐 크로노그래프는 티타늄의 강인함, 무엇보다도 밝은 마이크로 가스 튜브, 정밀도가 입증된 무브먼트, 불워치의 혈통을 잇는 시계입니다. 두 개의 푸셔로 쉽게 작동하고 특허받은 잠금 시스템으로 고정된 크로노그래프 바늘은 맥동계 눈금에 따라 작동하여 사람의 심장 박동 수를 빠르게 측정합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매 순간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북도, CES서 IoT 등 '혁신기술' 뽐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 방문단 구성
경북도 지원 기업체 13개사 참가
경북도관 운영... 글로벌 계약 성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해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 대표로 도 관련 부서와 함께 방문단을 구성해 지역 참가 기업체를 격려하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경북을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서 운영되는 CES2023 경상북도관에는 지역 업체인 세영정보통신, 모비프렌, 안켄 등 총 21개사가 있으며, 기업R&D지원, 제품상용화, 스타트업 기업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 등 경북도로부터 지원받는 기업체는 13개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VR, IoT, 스마트시티 서비스기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여 해외시장 판로확



CES혁신상 받은 포항의 망고슬래브의 머리 매직기를 홍보하고 있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운데).

대, 수출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파트너와 연결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특히, 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은 체지방을 장소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용 피트니스와 망고슬래브(대표 정용수)에서 개발한 헤어기기는 경쟁사 대비 열제어 시스템, 기능 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보인다. 이는 영국 D사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

한 프리미엄 무선 헤어스트레이너로 CES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 지역 기업체인 포스코그룹(POSCO홀딩스)에서도 박람회에 참가한다. 포스코그룹의 전시관 규모는 지난해 보다 2배로 넓어진다. 1조원 규모의 벤처플랫폼을 통해 지원한 벤처기업 19개사도 포스코그룹 전시관 내 개별부스를 운영하며 기업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 올해로 벌써 3번째 참가하게 됐다. 도와 함께 CES에 참가한 기업체들은美 현지 뿐만 아니라 행사 후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계약 성과를 이뤘다"면서 "경북에는 세계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 도는 기업체들의 핵심기술 개발, 신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 등 아낌없이 지원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경제부지사 방문단은 이달 8일까지 CES2023경상북도관 참관후 애플美본사를 방문해 애플 제조업R&D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 등 상생협력사업 확대와 후속발전 사업을 논의한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 미국 버팔로 및 뉴욕을 잇달아 방문해 도내 주력 산업 투자유치활동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50세 이상 국민건강검진비 지원

영양군은 1월 10일부터 50세 이상 영양군 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검진비 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원(풍력발전기금 19억5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영양군은 건강검진에 취약한 군민들이 일반건강검진 외 추가적으로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밀양시

'읍면동 방문 주민과 대화' 진행

밀양시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올 한 해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점에 둔 이번 읍면동 방문은 박일호 시장이 10일 무안면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현안 중심의 읍면동정 보고, 시정 현안사항 설명, 자유로운 대화를 중점에 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승인

남해군, 농업 경쟁력 제고

식량산업분야 국비사업 우선지원
지역별 식량작물 공동체 육성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량산업 5개년(2023~2027년)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남해군은 이번 승인을 통해 향후 5년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일환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지원 및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 등 식량산업분야 국비사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지역단위 식

량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벼 적정재배 면적 유지 ▲발작물 육성을 통한 수급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별 식량작물 공동체 육성 농가 조직화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등 시설운영 효율화 등이 추진된다.

남해군은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해 2021년 장충남남해군수를 위원장으로 행정, 농협, 발작물작목반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 바 있다. 식량산업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서면·현장·발표 3단계 평가를 통과하였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구 호텔인터볼고에서 '2023 영남권 신년인사회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대구서 영남지역 신년인사회

각계 주요 인사 700여명 참석

영남지역 각계 주요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구 호텔 인터볼고에서 지자체·국회·유관기관 중소기업계 등 영남지역 각계 주요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매년 권역별로 열리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

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힘든 상황에서 도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음악회도 함께 열었다.

이날 행사엔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영애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홍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영양 지역기업, 이웃에 사랑의 손길 '훈훈'

전원·한신전기, 싱크대 등 교체 도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가 있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월 9일 인테리어 전문회사 전원은 영양읍 동부리 지체장애자가정 김모씨(여, 65세) 가정을 방문하여 낡은 싱크대를 교체하였고(취한신전기는 노후돼 칙칙하고 어두웠던 주방과 거실을 화재경보기 및 조명으로 교체, 환하고 밝은 실내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번 재능기부는 싱크대와 조명이 많이 낡아 교체할 시기가 지났으나 형편이 어려워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영양군, 임형수 환경보전과장이 평소 친구이었던 전원

의 서영복 대표의 재능기부의사를 확인하였고 여기에(취한신전기 이준일 대표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이루어졌다.

김모씨(여, 65세)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는데 싱크대와 화재경보기 및 조명을 새 것으로 바꿔주셔서 집 안 분위기가 너무 밝아져 기분이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영복 전원 대표와 이준일(취한신전기 대표)은 "싱크대와 화재경보기 및 조명을 교체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며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산청군, 보훈대상자 도내 최고수준 예우

보훈대상자 보상 확대

산청군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 참전)와 보국수훈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상을 확대한다.

군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80세 이상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0세 미만 월 17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보국수훈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매달 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가구

당 월 120리터 이내)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참전했던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전에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산청군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약 935명이다. 또 2022년 12월 기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301명으로 6.25 참전유공자 109명 월 남 참전유공자 192명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신안군, 드론 이착륙시설 품평회

신안군은 지난 1월 5일 군청에서 관내 드론 보유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 이착륙시설 품평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드론 이착륙시설은 1톤 화물차에 드론을 고정하여 기존 2인 1조 드론방제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방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힘든 육체노동 및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동 중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여 1일 방제가 면적확대에 따라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영덕군-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3 나눔캠페인 '활발'

영덕군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에 관내 기관·단체와 군민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4일(영)영덕버스(대표이사 박영규)가 성금 300만원을 영덕군에 전달할 것을 비롯해 영덕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현규), 팔각산친환경절임배추 영농조합(대표 백운영), 서남사 신도회(주지 현담스님), (취)아름다운집 청소박사(대표 정은선)가 각각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함 전해요”

식품업계, 설 선물 대전

CJ제일제당 1만~2만원 상품 확대 플라스틱 등 최소화 ‘친환경 선물’

동원F&B 선물세트 200여종 참치·리챔 구성 세트에 주력

다이아지오코리아 한정판 위스키 ‘조니워커 블루 토끼띠’ 등 출시



모델들이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나라셀라가 2023 설 와인선물세트. /나라셀라

인 ‘조니워커 블루 고스트 앤 레어 포트 단다스’와 ‘조니워커 블루 토끼띠 에디션’이 눈길을 끈다.

특히 매년 위스키 마니아들을 기다리게 하는 조니워커의 대표적인 한정판 12간지 에디션도 선보인다. 올해는 검은 토끼띠인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조니워커 블루 토끼띠 에디션’이 출시됐다.

◆커피 전문점도 가성비 선물세트

커피 전문점 이디야커피와 할리스는 2만~3만원대 선물세트를 출시하며 가성비를 강조했다. 이디야커피는 이디야 시그니처 제품에 프리미엄 제품까지 담아 세트 4종(이디야 비니스트·이디야 올 어바웃 티·이디야 과일청·이디야 베스트커피)을 내놨다. 티 세트는 히비스커스·캐모마일·얼그레이·루이보스 티 4종과 전용 텀블러로 구성했다. 할리스는 설 선물세트 모먼트즈 오브 딜라이트 1·2호, 스페셜 3종을 내놨다. 감각적인 MD 제품과 스틱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올해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가성비를 중시한 선물세트가 많아졌다”며 “선물세트도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설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선물세트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절 대목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선물세트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쟁긴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가격대가 폭넓어진 것이 특징이며, ESG 경영 기조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를 입혔다.

◆가격대 넓히고 수량 늘리고

CJ제일제당은 높은 물가로 선물세트를 미리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1만~2만원대 제품을 약 10% 늘렸다. 또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기존 김 세트와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김 세트를 30% 늘려 판매한다.

아울러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페이퍼 패키지 제품인 ‘세이프 어스 초이스(Save Earth Choice)’ 선물세트 브랜드를 선보이고 비닐 라벨을 없앤 ‘스팸 라벨프리 선물세트’와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은 ‘CJ 명가김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특히 모든 선물세트에서 스펀 플라스틱 캡을 제거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했다.

동원F&B는 건강과 실속을 더한 ‘동원 설 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였다. 동원F&B는 고단백 영양식품 ‘동원참치’와 짜지 않아 건강한 ‘리챔’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에 주력한다. 또한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실속 종합선물세트를 확대 운영하며, MZ세대를 겨냥한 친환경 선물세트와 E.T, 미니언즈 등 영화 캐릭터를 제품화한 이색 선물세트도 함께 마련했다.

또 GNC 매장과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할인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홍삼 전문 브랜드 ‘천지인’을 비롯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GNC’,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리나’, 이너뷰티 브랜드 ‘뷰틱’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들로 구성됐다.

대상 청정원은 종합 선물세트인 ‘청정원 선물세트’ 캔햄 중심의 ‘우리팜 선물세트’ 명절 인기 품목인 ‘고급유 선물세트’ 캔햄과 유지류를 함께 담은 ‘참고

급유 선물세트’ 다양한 종류의 김의 ‘재래김 선물세트’ 등을 선보인다.

◆명절에는 고급스럽게 한 잔

주류 회사들은 설을 맞아 고급 주류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는 가성비를 자랑하는 ‘몬테스클레식’ 카버네 소비뇽과 샤도네이(2본입), ‘몽반’ 멀롯과 ‘샤도네이(2본입) 와인 세트’를 판매한다. 프리미엄 와인 선물세트로는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과 샤도네이(2본입), ‘덕훈 디코이’ 카버네 소비뇽과 멀롯(2본입), 등을 설 선물세트로 만날 수 있다.

다이아지오코리아는 한정판 조니워커 위스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우선 ‘조니워커 블루’의 대표적인 한정판 제품

99년 증류주 콘셉트 ‘일품진로’ 광고 공개

하이트진로, 온라인 등서 방역 엄선한 쌀 등 3가지 특징 표현



일품진로 영상광고 캡처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대한민국 대표 증류주 ‘일품진로’의 영상광고를 처음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과 옥외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이번 광고는 ‘99년 증류주의 정수’ 콘셉트로 제작됐다.

이번 광고는 패키지의 획을 모티브로 일품진로의 3가지 특징을 표현했다. ‘99년 노하우로 엄선한 쌀’, ‘중간 원액만 100% 선별’, ‘깊은 풍미를 위해 냉동여과 후 최적 기간 숙성’ 등 일품진로의

생산 과정을 독특한 시각으로 담았다. 광고는 빛의 움직임과 일품진로의 생산 과정을 교차해 보여준다. 화면 중간을 가로지르는 획은 신중히 쌀을 고르는 주조사의 손으로 바뀌고, 원을 그리

듯 그어지는 획은 과감하게 첫술과 끝술을 버리는 모습으로 변한다. 종이에 찍힌 점들은 기포로 변하며 일품진로의 숙성과정을 담았다. 또한 붓으로 획을 긋는 소리 등 청각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광고는 하이트진로의 슈퍼 프리미엄 증류주인 ‘진로 1924 헤리티지’의 탄생을 알리며 마무리된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농협, 한우 100마리 파격할인

9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 물가안정을 위한 ‘한우 100마리’ 파격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마트24서 에스프레소 맛보세요”

원두커피 브랜드 이프레소에 메뉴 추가



이마트24 매장에서 고객이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다. /이마트24

이마트24가 9일 원두커피 브랜드인 ‘이프레소 (epresso)’ 메뉴에 에스프레소를 추가한다.

이프레소 에스프레소는 가로 6.2cm, 높이 6.5cm 크기의 전용잔에 제공돼 커피 본연의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에스프레소 바가 유행한 후 경영주와 고객들로부터 메뉴 도입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에스프레소 출시를 기념해 1월 한달 간 2+1행사도 진행해 에스프레소 한 잔을 670원에 즐길 수 있다.

이프레소는 2017년 론칭 때부터 여러 원두를 혼합한 블렌딩 커피가 아닌 단일 원두를 사용한 싱글오리진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프레소를 포함한 모든 이프레소 커피는 최고등급 원두(브라질세라도N.Y)를 사용해,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이태리 명품커피 머신 ‘세코그랑이데아’를 통해 추출된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백 무역센터점에 ‘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

현대백화점이 오는 3월 무역센터점에 글로벌 수제 버거 브랜드인 ‘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 아시아 1호점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브랜드 론칭 후 첫 해외 점포다.

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는 영국 미쉐린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의 레시피를 구현하는 캐주얼 콘셉트 버거 브랜드다. 14만원 버거로 유명한 기존 ‘고든램지 버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캐주얼 버전의 레스토랑으로, 일반적인 버거 브랜드 매장보다 달리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서빙하는 게 특징이다.

약 200㎡(60평) 규모의 무역센터점 매장에서는 김치와 베이컨이 들어간 ‘코리안 스매시 버거’, 소고기 패티 기반의 ‘O.G.R 버거’ 등 총 7가지 버거와 감자튀김, 음료 등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11번가 17일까지 ‘뉴 트렌드 스타일’ 행사

11번가가 17일까지 동대문 시장의 신상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뉴 트렌드 스타일’ 행사를 진행한다. 동대문 시장은 고객 수요를 즉각 반영해 유행 디자인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패션 일번지다. 행사는 동대문 패션 시장 셀러들의 120여종 상품들을 모아 가성비 있는 가격에 선보이며 오후 4시 이전 주문 시 당일발송 한다.

기획전을 통해 올 겨울 트렌드로 떠오른 ‘Y2K 패션’의 대표 아이템인 ‘코듀로이’ 소재의 부츠컷 팬츠, 치마바지, 밴딩 팬츠 등을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그 외 크롭 터틀넥, 오버핏 조거팬츠, 투웨이 집업, 리버시블 덕 다운 등 올 겨울 인기를 모은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김서현 기자

남양유업 아이엠마더·임페리얼드림XO 리뉴얼

남양유업의 대표 조제분유 ‘아이엠마더’와 ‘임페리얼드림XO’가 리뉴얼 출시된다. 55년 남양유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아이엠마더는 초유 단백질의 대표적인 자기방어 성분인 IgA 성분을 배합하고, 41가지 핵심영양을 담아 국내 최대 영양성분수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영양 흡수 OPO 설계로 아이의 성장

에 필요한 영양이 끝까지 흡수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임페리얼드림XO는 장속 유익균을 돕는 갈락토실라토스(HMO)를 배합하여 편안한 소화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J푸드빌 ‘더플레이스’, 특화 전략 주효... ‘핫플’ 자리매김

상권별 특성 반영 특화매장 선별
영등포타임스퀘어점 문전성시
특화 메뉴, 와인라운지 등 인기

여의도 IFC점, 좌석 규모 넓혀
평일 직장인·주말 외식수요 공략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더플레이스’가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매장을 늘리며 브랜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권은 도심권, 역세권, 대학가, 아파트단지, 주택지 등 5가지로 분류되며 그 외에 쇼핑센터나 전문상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한 특화형 상권이 있다. CJ푸드빌의 더플레이스는 주로 특화형 상권에 위치해 있다. 9일 <메트로경제>가 취재한 것을 종합해보면, CJ푸드빌은 소비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집객 시설이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더플레이스의 상권별 전략을 다르게 펼쳐 수익성을 개선했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플레이스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은 연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고객이 대거 몰리면서 주말 평균 100팀 이상이 대기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는 대기번호가 600번을 넘어서기도 했다. 타임스퀘어점의 경우 ‘이곳’에서만



더플레이스 영등포 타임스퀘어점.

/CJ푸드빌

만날 수 있는 고객 경험에 집중했다. 더플레이스는 지난해 4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을 스테이크&와인 강화매장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리뉴얼 오픈 전후 8개월간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약 63%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연말 모임이 집중된 지난해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약 146% 늘어났다. 주말 예약률도 리뉴얼 전보다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스퀘어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 스테이크는 고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최근 대부분의 매장으로 도입을 확산했다. 안심과 채끝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티본 스테이크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와 채끝 스테이크, 문어, 랍스터를 함께 제공

하는 ‘비스테카&랍스터’다. 이 매장은 프리미엄 스테이크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테스트 베드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매장 입구에는 와인 라운지를 마련해 기존 매장과 차별화를 꾀했다. 스테이크, 피자&파스타, 안티파스티(이탈리안 에피타이저) 등 메뉴와 어울리는 와인을 세션별로 분리했으며, 소믈리에 직원이 와인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와인을 추천한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으로 특화매장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CJ푸드빌은 홍대, 여의도 등 주요 상권으로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 IFC점’은 기존 매장 대비 약 70% 이상 좌석 규모를 늘려 확장 리뉴얼했다. 평일 직장인과 주말 특별

외식 수요를 감안해 고급스러운 맛과 분위기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파인 캐주얼 다이닝 콘셉트로 포지셔닝했다. 평일 런치 1인 스테이크부터 라이브 피자 화덕, 와인바 등 특화 요소를 더했다. 리뉴얼 오픈 후 전년 동기 대비 약 246% 늘어난 매출을 기록 중이다.

또 하나의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지역은 이례적으로 호텔 내 입점한 ‘홍대L7점’을 운영 중이다. 고층부에서 일몰과 야경 등 스카이를 만끽하며 분위기 있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국내외 관광객, 연인, 비즈니스 모임 방문객 등 다양한 고객층을 고려해 한정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저녁 시간대는 주류를 즐기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투숙객들을 위해 시그니처 메뉴 ‘리코타 프루타 샐러드’를 비롯 전문 셰프의 역량과 브랜드 개성이 담긴 조식 뷔페도 운영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더플레이스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수준의 다양한 이탈리아 메뉴를 세련된 공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인기 브랜드”라며 “브랜드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해 상권 특성에 따른 질적 고급화에 집중, 더욱 다양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관장 동인비 설 특별 패키지 선봬

정관장의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동인비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동인비의 대표 제품들로 구성된 새해 기념 특별 패키지를 24일까지 선보인다.



대표적인 ‘1899 시그니처 오일(사진)’의 새해 특별 패키지에는 ‘1899 싱글에센스 70ml’가 함께 구성돼 선물의 품격을 더욱 높였을 뿐 아니라 깊어지는 피부고민까지 정성스런 케어가 가능한 설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899 시그니처 오일은 31가지의 정교한 공정으로 완성된 동인비만의 ‘얼티밋퓨어’ 기술로 정관장 홍삼을 추출한 고순도 프리미엄 홍삼오일이다. 피부에 유용한 21종의 ‘지방산(RG-FA)’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 줄 뿐 아니라 피부심층 탄력, 심층 치밀도, 항산화 개선 등 심층 안티에이징 효능이 있다. 피부장벽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듀얼 안티에이징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동아제약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

동아제약은 비타민C 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이 건강기능식품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는 한 파우치 안에 비타민C, E, 아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함유해 항산화 및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오렌지, 포도 두 가지 맛으로 구성했으며 파우치 패키징으로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해 복용편의성을 더했다.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는 동아제약 온라인 공식몰인 디몰(:Dmall)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15개 파우치가 동봉된 박스 단위로 구매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허브마리 1848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 출시

애경산업의 제주산 내추럴 허브에센스를 담은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브랜드 ‘허브마리 1848’(HERBMARY1848)에서 온 가족의 류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 센서티브’를 출시했다. 허브마리 1848 드라이시트 센서티브는 건조기 사용 시 섬유 보호는 물론 기본 좋은 향을 전달해주는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 26종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온 가족의류뿐 아니라 수건, 침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허브마리 1848 드라이시트 센서티브는 제주산 내추럴 허브에센스를 함유해 건조 후에도 풍부한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조기 사용 후 섬유에 잔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트 1장당 액물을 고무도포해 각 시트마다 동일한 향기와 유연력을 유지해주며, 정전기 방지 효과를 더해 정전기를 감소시키고 옷감을 부드럽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SK바사 대상포진 백신, 동남아 진출 박차

말레이시아 품목 허가 획득
해외 신시장 공략 가속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사진)’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조스터’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스카이조스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건 2020년 5월 태국에 이어 두 번째다.

말레이시아는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



는 등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대표적인 고연령층 질환인 대상포진 예방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는 복지부(MOU)에 약 324억 링깃(약 9조 5482억원) 규모의 국가 방역 예산을 할당하는 등 복지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스카이조스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대상포진 백신으로, 지난 2017년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스카이조스터 임상 3상에서 건강한 50세 이상 성인 824명을 등록해 면역원성을 평가한 결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역가가 접종 전 대비 2.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백신(MSD 조스타박스)과 세포 매개 면역반응도 동등했다.

안전성 평가 결과 스카이조스터 접종 후 6주간 발생했던 이상반응 발현

율이 대조백신군과 유사했으며, 접종 후 26주 동안 접종과 연관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시판 후 4년간 651명을 대상으로 한 스카이조스터 시판 후 조사 결과 중대한 이상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스카이조스터는 우수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MS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스카이조스터의 시장 점유율은 56%(도즈 수 기준)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내 스카이조스터의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신시장에 대한 스카이조스터의 허가 등록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급증... “고령층 고관절 골절 주의”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작은 충격에도 위험 커”

한파와 대설 특보가 잦은 추운 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고관절은 실금이 생기더라도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들은 꼭 의료가 관을 방문해 검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경우, 손목, 허리, 고관절이 가장 흔하게 부러지



는데 이 가운데 허리와 고관절 골절이 환자의 거동을 크게 제한해 2차적 문제를 일으킨다. 고관절 주변 골절은 체중이 직접적으로 실리는 대퇴 경부 골절이나 전자간 골절이 가장 흔하고, 이 환자들은 다친 이후에 꼼짝도 하기 힘들어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오는 사례가 많다.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박장원

교수(사진)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고령환자는 빙판길에서 가벼운 충격을 받아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고관절 골절 시 다수가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나 금속정을 삽입하는 골절 고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지병이 많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가관에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박장원 교수는 “최근 90대 심지어 100세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술

적 치료를 하고 있으며, 수술 결과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므로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119나 구급차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밤에는 얼어붙은 바닥이 잘 보이지 않고 차도나 골목길에서는 시야가 제한돼 사고 위험이 높다. 하지만 꼭 외부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 특히 화장실을 오갈 때도 많이 넘어지기에 노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화장실 환경이 미끄럽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세경 기자

Krispy Kreme DOUGHNUTS × miffy



HAPPY NEW YEAR with MIFFY

KRISPY
KREME



RICE
FLAVOR

HAPPY MIFFY



CHOCO

LUCKY MELANIE



Illustrations Dick Bruna © copyright Mercis bv, 1953-2022

LOVELY RABBIT FOOT

MELON



CARROT

CARROT GARDEN

Krispy Kreme DOUGHNUTS



KB금융, 피겨 꿈나무 위한 장학금 5000만원 전달
KB금융그룹은 지난 8일 막을 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에서 한국 피겨 꿈나무들을 위한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5000만원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KB금융지주 브랜드총괄 김진영 전무(맨 앞줄 왼쪽)가 대한빙상경기연맹 김홍식 부회장(맨 앞줄 오른쪽) 등과 피겨 꿈나무 장학금을 전달하고 포즈를 취했다. /KB금융지주

**한국토요타
콘야마 마나부 신임사장 부임**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새로운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토요타는 콘야마 마나부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마나부 사장은 1990년 토요타에 입사해 리서치부와 딜러 네트워크 개발, 해외 시장 판매 및 운영 전략 등 다양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2011년부터 5년간 중국제일차와 토요타 합작사인 FAW토요타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부에서 동아시아 지역담당을 맡아왔다. /김재홍 기자 juk@

**페르노리카코리아
지속가능 바텐딩 교육생 모집**

글로벌 와인 및 스피릿 기업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바텐딩 및 바(bar) 운영 교육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텐딩' 프로그램의 2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텐딩' 교육 프로그램은 페르노리카 그룹이 전 세계 바텐더와 바 오너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전문 교육으로, 서울에서는 바와 호텔, 레스토랑에 종사하는 19세 이상의 바텐더 혹은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인사

- ◆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주거복지정책관 이상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부원장 황태석 ▲ 원자력안전본부장 정구영 ▲ 수석전문위원 하연희 ▲ 전문위원 김선재

부음

- ▲김정희씨 별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사장, 성규 전중 양일보 부국장 모친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안성 유토피아 수목장. 02-3410-6915
- ▲최창락씨 별세, 최원자(경기도청 서비스산업유치팀장)·최병용(파워텔레콤 이사)씨 부친상, 이영규(아시아경제 경기도남부주재 부장)씨 장인상 = 9일 오전 0시 21분, 수원시 연화장 208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 ▲홍원기(전 한국일보 감사·전 데일리노컷뉴스 회장·전 대한언론인회장)씨 별세, 한영옥씨 남편상, 홍유석(디앤디파마텍 대표)·홍수연(화가)·홍수아씨 부친상, 유지민씨 시부상 = 8일 오후 2시 47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1일 오후 1시 02-2072-2022
- ▲최상조씨 별세, 최문희(기아차 인디아법인 생산실장 상무)·최두희(KB증권 브랜드전략부장)씨 부친상 = 9일 오전, 강원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1층 1호실, 발인 11일. 033-570-7450
- ▲정성례 씨 별세, 이갑재(광주시 감사위원장·전 감사원 과장) 씨 모친상 = 9일 오전, 광주 그린 장례문화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062-250-4455

SK바이오팜, CES서 '뇌전증 의료기기' 이목집중

**웨어러블 디바이스 5종 전시
최태원 회장도 직접 체험·격려
국내 제약사 최초 혁신상 수상**

SK바이오팜이 지난 5~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첫 참가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4일간의 전시회 기간 중 자체 개발 중인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5종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CES 첫 참가에서 국내 제약사 최초로 'CES 혁신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고, 글로벌 협력사인 디지털 치료제 기업과의 현장 미팅을 가지는 등의 성과를 내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제로 클래스'와 '제로 와이어드'는 뛰어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국내 제약사 최초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다.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이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제로 앱'에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전시 이틀 차인 6일에는 최태원 S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부스에 방문, SK바이오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제로 클래스TM'을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

K그룹 회장이 부스에 방문해 안경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제로 클래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SK그룹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바이오와 디지털이 결합된 산업 분야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SK바이오팜의 사업 강화를 격려했다.

또한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미국 디지털 치료제 선도기업 '칼라헬스'의 트레 라이언 사장과 현장 첫 미팅을 갖고 DTx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SK바이오팜 CES 2023 현장 부스에도 칼라헬스의 본태성 펄프 디지털 웨어러블 치료기인 칼라트리오를 함께 전시해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자체 개발한 5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작이자, 혁신신약 세노바메이트와의 시너지 효과로 뇌전증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투자와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혁신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차별화된 가치 제고와 지속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기업은행,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74개사 선정

**5개월 간 1대1 전담 멘토링 등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지원**

IBK기업은행이 2023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을 최종선발해 1월부터 5개월간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650여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약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74개사가 선발됐다.

업종별로는 ▲ 지식서비스(30%) ▲ 정보·통신(21.4%) ▲ 첨단제조·자동화(14.3%) 순으로 많이 선발됐으며 지능형 로봇의 광시야 3D 카메라 제조, 친환경·고성능 수계배터리 제조 등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이 최종 선발됐다.



2023년 상반기 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인 'IBK창공'에 최종 선발된 기업들이 대전(왼쪽), 부산에서 입소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인 'IBK창공'에 최종 선발된 기업들이 부산에서 입소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IBK창공'은 최종선발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전 진단평가 이후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의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1대 1 전담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투·융자 금융지원은 물론 V

C를 통한 투자 연계, 글로벌 IR,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및 판로개척 지원, 산·학·연 기술매칭 프로그램, 창공육성 기업 간 네트워크 행사 등 다양한 창공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벤처투자 위축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IBK창공' 혁신창업기업들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펫프렌즈, 가족찾기 입양 서비스 도입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 앞장
전국 유실·유기동물 정보 제공**

반려동물 쇼펄펫프렌즈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성숙하고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1만 8000여 마리로 매일 324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의 수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수준인 6만 마리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펫프렌즈는 입양 서비스를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보호소에 있는 유실·유기

동물의 상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사진과 함께 품종과 나이는 물론 중성화 여부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하단의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호중인 보호소로 즉시 연결된다.

또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돕기 위해 입양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와 입양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입양 시 발급받은 입양 확인서를 펫프렌즈의 24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 제출하면 새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한 입양 지원금도 제공한다.

펫프렌즈는 지난 달 국가동물등록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어 이번 입양 서비스를 도입하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한양행, 임직원 나눔결실 장애인 복지에 사용

유한양행은 최근 '기부 물품 경매와 바자회' 행사 수익금과 회사 기부금을 더해 총 1823만원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된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28~29일 열린 유한양행 연말 바자회 현장에서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유한양행

더클래스 효성

겨울 정비 프로모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겨울 맞이 정비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더클래스 효성은 31일까지 '겨울 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배터리, 부동액, 브레이크액 등 동절기 차량관리를 위한 주요 부품 최대 25% 할인과 와이퍼 블레이드 부품 30%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아울러 ▲브레이크패드 ▲디스크 ▲에어필터 ▲스파크플러그 ▲인젝터 ▲연료필터 등을 1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한용수의
돌직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이 일부 충족해서다. 내주쯤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정식 시작될 전망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의 변수가 됐던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 3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순간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중증도는 낮아지며 감염 후 치료와 면역력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면 되는 풍토병 정도로 변모할 수 있을까. 다만, 바이러스 특성상 새로운 변

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해야 하고, 그에 맞는 개량백신 개발 등 여전히 긴장의 고삐는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마스크를 곧 벗게 되는 마당에 대다수 선진국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마스크 의무화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으나, 그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인권침해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없지 않았다.

실내외 공간을 들락거릴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하는 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은 일일뿐더러,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제 그런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벗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혀서는 안된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지금까지도 야외에서 상당기간 많은 사람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왔다는 걸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오히려 마스크를 이제 곧 벗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동의 연대를 이어갔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 목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재벌집 막내아들부터 길거리 노숙인까지 우린 마스크를 함께 쓰며 전염병에 저항하고 버텼다. 부자라고 마스크 두세개를 쓰지도 않았고, 가난하다고 하루 한 개의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마스크에 있어선 누구나 평등했고 색깔을 나누지도 편을 가르지도 않았다.

이제 마스크를 벗더라도 마스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함께 해온 동반자였다는 사실은 잊지 않길 소망한다. 올해는 지난해 최악의 무역적자에 이어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국내의 주요 기관 모두 1%대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잡기보단 마스크로 하나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경제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세종=hys@metroseoul.co.kr

금융혼란과 은행권의 자세



기지수첩
구남영
(금융부)

“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은행법 제1조).”

이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이를 망각한 채 금융혼란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뚫었다. 실질적으로 우리 월급은 줄어든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9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5~8.12%에 형성됐다.

연 8%대 주담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그러나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높은 대출이자율에 비해 성과급과 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확대해 이자수익을 끌어올린 탓이다.

5개 금융지주의 2022년 이자수익은 80조9770억원으로 2021년(59조3860억원)에 비해 21조5910억원(36.3%) 증가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의 위험을 감내하고 성장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집착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두 곳은 지난해 1분기에만 대출금 전체의 98%를 예금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1분기 평균 대출이자로 3.28%를 받고 예금이자로는 1.04%만 지급했다.

이처럼 국내 은행 대부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은행권의 수익 구조는 국내와 다르다.

미국의 B대형은행의 경우 1분기 말 이자수익이 128억9400만달러지만, 이를 제외한 수익도 122억2300만달러에 달한다. 대형 해외 은행들은 당장의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권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은행에 대해 공법상의 규제 권한을 발휘해 다소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금융부실이 사회 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koogija_tea@

오늘의 운세 1월 10일 (음 1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48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0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2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84년생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라.



37년생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자. 49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61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73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85년생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38년생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자. 50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62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74년생 이기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가라. 86년생 흥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39년생 동분서주 바쁘지만 하고 실속은 없다. 51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6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87년생 오늘은 나만을 위해 지출을 해보자.



40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 52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64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른 법. 76년생 추적으로 기분을 달랠다. 88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



41년생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중요. 53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65년생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77년생 자기집손은 커다란 덕목. 89년생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아름답다고 연못에 빠지려하는가.



42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때면 된다. 54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66년생 외출할 때 이문채를 조심. 78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면 길이 보인다. 90년생 충동적인 사치로 인해 빚내서 빚을 갚는다.



43년생 목마른 자기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 한다. 55년생 누구든 인연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세상사. 67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79년생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91년생 희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44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56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걱정. 68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80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92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금계획부터.



45년생 간절한 기도는 가뭄을 불러온다. 57년생 처음이 중요하나 끝맺음도 잘 해야 한다. 69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81년생 독단에 빠지면 위기가 오니 겸손하게 소통을. 93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6년생 제3자로 해서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58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70년생 감사한 마음은 항상 기회를 제공한다. 82년생 빨간색 우체통을 보니 공연히 반갑다. 94년생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47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 59년생 주식투자는 시간 낭비. 71년생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83년생 시골로 이사 가려면 먼 저 한달 살아보기를 해보자. 95년생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계획.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③

을목(乙木)은 부드러우나 소(丑)와 양(未)을 찌르며 가를 수 있고 병(丙)과 정(丁)을 품으면 봉황(鳳)과 원숭이(申)를 탈수 있다. 지지(地支)가 습하고 허하면 말(午)을 타고 역시 근심을 면하기 어렵고 등라계갑(藤蘿繫甲)이 되면 붉고 좋고 가을도 좋다. 병화(丙火)는 맹렬하니 서리와 눈을 업신여기며 능히 경금(庚金)을 제련한다. 그러나 신금(辛金)을 만나면 오히려 겁을 내고 토(土)가 많으면 자비를 드러내고 수(水)가 창궐해도 절개를 지킨다. 호랑이(寅)와 말(午)과 개(戌)의 마을에 갑목(甲木)이 오면 반드시 타서 없어진다.

정화(丁火)는 부드러우면서도 밝게 빛난다. 을목(乙木)을 안으면 효도하고 임(壬)과 합(合)하면 충성한다. 비록 왕성해도 맹렬하지 않고 쇠약해도 궁하지 않으니 친어머니(甲)가 있으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무토(戊土)는 굳고 두터우며 그 자체로 이미 중앙에 거하면서 기품이 있다. 고요하면 모이고 움직이면 열려 만물이 다스린다. 물로 적셔 두면 만물이 생하고 흙이 메마르면 만물이 병든다. 만약 간곤(艮坤;寅申)충이 있으면 충(沖)이 두려우니 고요해야 한다. 기토(己土)는 낮고 습하며 중정(中正)을 포함한다.

목(木)이 왕성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물이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은 화(火)는 기토를 만나면 빛을 잃으나 많은 금은 기토를 만나면 빛이 난다. 만약 만물이 왕성해지려면 화토(火土)의 방조(扶助)를 얻어야 한다. 경금(庚金)은 살기를 띠며 가장 강건하다. 물을 얻으면 깨끗해지고 火를 얻으면 예리해지고 토의 윤택함을 얻으면 생(生)하고 토가 건조해지면 물러진다. 형인 갑(甲)에게는 이기지만 아우인 을(乙)에게는 진다. 독자분들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읽다보면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쫓아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5		1	6
			1			4
8			2			3
2				3		6
4	6	8				
8			1			
9	1			2		
	6	4	9	8		

3						
	1		4	7		5
	2					1
3				8	5	2
9				5		3
				8		9
	1	3			4	8
				6	1	7

정답

9	2	1	8	6	4	9	8
8	9	2	8	4	9	1	6
6	4	8	9	9	1	2	8
2	6	9	1	8	9	8	4
1	9	8	8	4	9	6	2
8	4	4	6	2	9	1	8
8	8	2	4	9	2	6	9
4	9	6	8	1	8	2	9
9	1	2	9	6	8	8	4

4	2	1	2	9	8	6	9	8
9	2	8	4	6	8	1	9	
8	6	9	9	8	1	2	4	
8	8	1	9	9	4	6	2	
2	9	9	8	6	4	8	1	
1	4	6	8	2	8	9	9	
6	1	4	9	8	8	9	2	8
9	9	8	2	4	2	1	8	6
8	8	2	6	1	9	9	4	8

과·비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0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선의 경쟁 vs 형제의 난... '가격인상' 놓고 기사움 팽팽

에이스침대-시몬스 언론전

시몬스 “에이스침대 등과 달리 2년째, 올해도 가격 동결” 보도에 에이스침대 “2위와 격차 확 벌려” 보도자료서 시몬스 견제성 발언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안정호 시몬스 대표

선의의 경쟁일까, 갈등의 시작일까. 침대업계 ‘형제의 난’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업계 1위 에이스침대와 2위 시몬스가 새해 벽두부터 ‘가격’을 놓고 팽팽하게 살바싸움을 벌이면서다.

에이스침대 안성호 대표와 시몬스 안정호 대표는 형제지간으로, 안유수 에이스침대 명예회장의 장남·차남이다.

에이스침대는 9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백화점 매출이 역대 최고인 1700억원을 돌파하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업계 2위와의 격차를 확 벌렸다”고 밝혔다.

‘업계 2위’는 다름아닌 시몬스 침대를 이야기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1

년 기준으로 에이스침대는 3464억원의 매출과 76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같은해 시몬스는 매출 3054억원, 영업이익 184억원을 기록했다.

형이 운영하는 에이스침대가 동생의 시몬스를 앞지르며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에이스침대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시몬스가 지난 2일 낸 내용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시몬스는 새해 첫 출근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몬스는 국내외 침대 전문 브랜드인 에이스침대, 템퍼, 쉘리침대 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렌탈을 하는 코웨이 그리고 종합가구사인 한샘, 현대리바트가 지난해에 가격을 모두 올린데 이어 올해도 가격을 인상했거나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그후 일주일 뒤 형 회사는 동생 회사의 이같은 ‘도발’에 강하게 반박했다.

에이스침대는 “(우리회사는) 최근만 5년간(2017년 12월 ~ 2022년 12월) 단 2차례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최근 2년째 가격을 동결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시몬스의 경우 실제 2017년 말부터 6차례, 특히 2021년에 3차례나 가격을 인상했다”고 언급하면서다.

실제 시몬스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4·7·11월에 고가 및 대형 사이즈 매트리스(8~15%), 침대프레임(10%), 뷰티레스트블랙(최대 10%) 등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다만 최근 2~3년새 ‘시몬스 맨션’을 통해 직영점을 확대하고 있는 시몬스는 대리점 체제 중심이던 2017~2018년 당시의 가격 인상은 본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직접 비교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에이스침대도 2021년 4월에 매트리스(14%)와 프레임(8%) 가격을 인상했다.

에이스침대는 그러면서 “이는 동일 기간 내 인기 매트리스 가격 인상을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대비된다”며 “실제로 시몬스의 매트리스 ‘윌리엄’과 ‘헨리’의 경우 2017년 12월 대비 65%~87% 가량 인상된 것에 반해 에이스침대 베스트셀러인 ‘하이브리드테크’ 레드와 블루는 약 30~33% 가량 인상에 그쳤다”고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언급하

며 가격 논쟁에 불을 붙인 시몬스를 꼬집었다.

시몬스는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에이스침대는 2022년 최대 20% 가격을 올렸으며 쉘리침대와 템퍼도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 차례에 걸쳐 평균 10~14% 가격을 올렸던 에이스침대는 “올해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교체 수요 증가로 호시절을 보낸 가구업계가 지난해 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 이어 올해엔 더욱 어려워지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침대업계 1·2위이자 형제가 각각 경영하는 두 회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사실이 걸린 업계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 1·2위인 에이스침대, 시몬스가 올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는 것과 달리 외국계인 쉘리침대가 연초부터 최대 10%를 인상하는 등 주요 침대·매트리스 회사들의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추가근로제 일몰에 폐업 위기... 대책 마련을”

중소중앙회-한무경의원 토론회 중소조선업 근로자 73% 임금 감소 절반 이상은 생계유지위해 ‘투잡’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 도출돼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사람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연·분기·월 단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특근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앞줄 왼쪽 6번째부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무경 의원, 이영 중기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중앙회

다. 또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공학대학 이상희 교수, 아주대 이승길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승길 교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일사천리’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바다숲감태 등 일반방송 전환

홈쇼핑이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홈쇼핑은 우수 중소기업 발굴, 입점, 판매까지 지원하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사업인 ‘일사천리’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다숲감태, 청해우진도곱창김, 바다한끼해물모듬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일반방송으로 전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상품은 홈쇼핑의 ‘찾아가는 MD상담회’를 통해 발굴한 상품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MD들이 호흡을 맞춰 가며 마케팅을 한 결과 일반방송으로 편성하게 됐다.



홈쇼핑이 일사천리 방송을 통해 선보인 ‘진도곱창김’.

특히 지난 5일에 방송한 ‘청해우진도 곱창김’은 방송 시작과 동시에 1억3000만원 매출, 2300세트 주문수를 기록하며 고객들에게 큰 반응을 얻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신세계까사, 부산에 ‘카르페디엠베드’ 팝업

신세계백 부산 센텀시티점서 15일까지

신세계까사(SHINSEGAE CASA)가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카르페디엠베드(CARPE DIEM BEDS)’ 팝업 스토어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 9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카르페디엠베드는 지난해 5월부터 아시아 지역 최초로 독점 수입 판매하는 스웨덴 침대 브랜드로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

부산 지역에 첫 선을 보인다.

카르페디엠베드 센텀시티 팝업 스토어에선 카르페디엠베드의 대표 제품인 산도, 하르마노, 말로를 포함한 주요 라인업을 직접 체험하고 브랜드 전문가를 통한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한 헤드보드, 다릿발, 패브릭 소재 등 다양한 옵션도 함께 전시해 카르페디엠베드만의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김만배, 2017~19년 언론사 2곳 인수 시도”
- ▲ 울겨울 최악 미세먼지 엄습... 금요일 비 온 뒤 얼어질 듯 /사진 뉴시스

- ▲ 새벽 재난문자에 ‘화들짝’...강화서 규모 3.7 지진, ‘피해 없어’
- ▲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 충족... ‘변이·해외상황 종합 판단’



- ▲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 징유... “수사협조·범행인정” /사진 뉴시스
- ▲ 지역아동센터 돌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종사자 처우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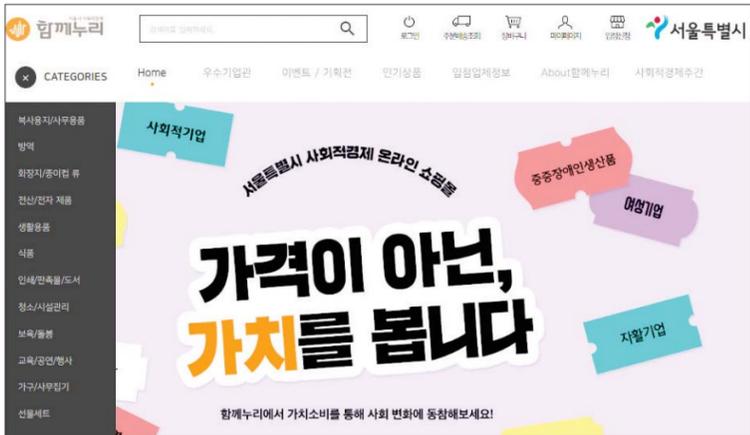
공정도시 서울 만든다... 노동자 지원체계 등 5대 과제 추진

농수산 유통환경 조성 등 핵심 취약계층 노동 환경 개선 총력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서울시가 약자와 상생하는 공정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최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자 지원 체계 구축 ▲소상공인 회복 지원 ▲상권 발전 기반 마련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농수산 유통환경 조성이라는 5대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다.

우선 시는 취약계층의 노동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시는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20곳, 공공조달 용역업체 20곳, 민간위탁시설 60곳을 포함 총 100곳의 공공사업장에 마을노무사를 투입해 노동 환경 개선 컨설팅을 벌였다. 노무사들은 현장에 찾아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를 점검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함께누리물

뒤 취업규칙 미개정, 필수구비서류 미비, 안전보건 관리 미흡 등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민간 중소기업장 131곳을 대상으로는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직원관리 서류작성, 노무관리 방법 안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복구비를 지급해 일상

으로의 빠른 복구를 도모했다. 시는 작년 8월8~17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804명에게 각각 500만원(긴급복구비 200만원·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시 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했고,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복구비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재난지원금과 수재의연금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배달앱사와 공동 운영하는 공공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탤다. 시는 앱에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했다. 뽕겨요·위메프·떡볶이 등 7개 배달앱사는 배달앱 개발·운영과 가맹점 관리, 2% 이하 중개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 초기인 2020년 10월 0.72%였던 시장 점유율은 작년 9월 3.09%로 4배 이상 상승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3만592개소에서 6만144개소로 2배, 매출액은 57억9800만원에서 439억5600만원으로 7.6배 늘었다. 시는 올해 '가칭'서울배달'로 제로배달 유니온의 명칭을 변경한 후 서울 공공배달 서비스의 브랜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대 교체 지원, 안전과 위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했다. 지난해 시는 고객선 준수, 품명 및 원산지 표기를 개선하고자 10억원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이 4곳의 판매대를 교체했

다. 시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에도 앞장섰다. 지난해 시는 사회적경제 정보 플랫폼 '캐빈닷넷'을 운영해 가치소비 관련 101개 콘텐츠를 게시하고 210여개 기업을 소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물'에 690개 기업을 입점시켜 1만4101개 상품을 선배 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도 지속 운영했다. 시는 4차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을 키우고자 지난 2016년 12월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문을 열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농업과 기술 융합, 판로 확보, 투자 유치,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 입주 기업들은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누적 매출액 1015억원, 투자유치 375억원, 신규 고용 802명, 지적재산권 특허·상표·디자인 517건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김동연표 공약 확정... 38조 투입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과제 GTX 연장·신설 등 주요사업 포함

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항 295개를 최종 확정하고 38조44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에 확정된 공약에는 예술인기회소득, 경기청년캠퍼스 및 경기청년사다리,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추진, GTX 연장 및 신설 등의 주요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제안과제를 바탕으로 실국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배심위원단의 공약과제 조정, 전문가 자문, 도정혁신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약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혁신·기



2023 기획경기 워크숍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회·통합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과제를 민선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국비 5조 166억 원과 도비 8조 865억 원을 포함해 총 38조 4,4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먼저, '더 많은 기회' 실현을 위해 도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교통·일자리가 유쾌한 경기,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116개 실천 과제에 3조 8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도민에게 알리는 한편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가구 신규 모집

중위소득 85% 이하로 지원 확대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사업 공고일(1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서울복지

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최종선정된 가구에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외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0일 (화)

음력 : 12월 19일

수도권 날씨

-3 ~ 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7:47 | 해질 / 17:3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찾은 싱가포르 대표단, 교통기술 체험

탄소 중립 실현 등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교류 강화

서울시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전국교통노동자조합 대표단에 시의 선진 교통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수소버스 확대와 교통 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양도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 시스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싱가포르의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 계획·설계를 총괄하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과 역무원·정비기술자 등 운수업계 회

원을 보유한 싱가포르 전국교통노동자조합 관계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대표단은 은평공영차고지를 찾아 전기버스 충전 시설 등 버스 운영 현장을 시찰했다. 또 서울시 버스, 지하철, 도로 등 교통 및 소통 상황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토피스(TOPIS)를 방문했으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에도 탑승해 서울시의 첨단 교통 시스템을 몸소 체험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만,美의원 등 포함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초청받아 /사진 뉴시스
- ▲FTX 새 경영진, 창업자가 뿌린 기부금 회수 나서

- ▲중국, 연초부터 대만주변 실전훈련 군용기 57대 동원 무력시위
- ▲새해 우크라이나 우세 이어가지만 결정적 승리는 어려워



- ▲브라질 시위대 대통령궁·의회·대법원 점거 /사진 뉴시스
- ▲세네갈서 버스 두 대 충돌해 40명 사망...사흘간 국가에도



[라이프] 식품업계 설 선물 대전 "따뜻함 전해요" L1



Life

[라이프] CJ푸드빌 '더플레이스' 특화전략 주요 L2



ESG경영 심고, 친환경 채권 물 주고 '녹색금융'으로 모두가 그린 내일을 키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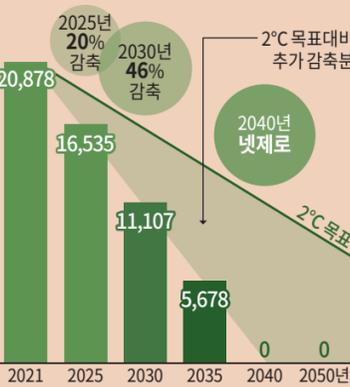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DGB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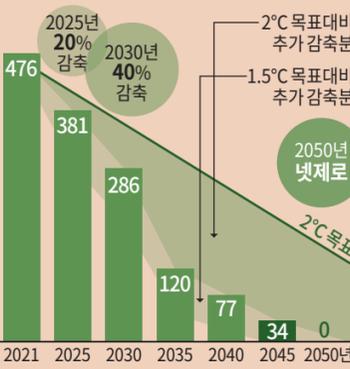
DGB금융그룹은 최근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인 ESG경영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선포식을 열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본격적인 ESG 경영에 뛰어 들면서 현재는 지역사회까지 ESG 경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자체배출량 이행경로 단위: tCO2e



금융배출량 이행경로 단위: tCO2e



① DGB금융 대구경북 ESG 추진협의체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② DGB금융그룹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금융부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황병우 DGB금융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전무(왼쪽)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KOREAN SUSTAINABILITY CONFERENCE 2022

◆ 글로벌 ESG 선구자의 길

9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국내 최초로 사회책임투자펀드를 판매했다. 이어 유엔 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등에도 가입해 선도적인 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김태오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DGB금융의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먼저 글로벌 3대 지표로 불리는 'MSCI (모건스탠리)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인 'AA등급'을 획득했다. 또 미(美)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LA CP 2022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국내에서 DGB금융의 ESG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유엔글로벌콤팩트 선도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이어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12회 수상하는 기록을 경신했다.

◆ 전 계열사와 '친환경 금융' 앞장

특히 DGB금융은 전 계열사가 친환경 금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ESG 채권 발행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사업 투자 ▲기업 지원 확대 등 친환경 금융 활동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먼저 DGB대구은행은 대구시와 손잡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대출상품인 'DGB론(LOAN)'을 저금리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특별대출상품인 'ESG 그로업(Grow UP)' 역시 환경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환경특화점포인 'DGB사이버그린지점'을 운영하며 친환경 금융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DGB생명과 하이투자증권은 ESG 금융 기준을 수립하고 ESG 채권 및 대체투자 등을 통해 녹색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배

금융업계 ESG경영 선두주자

국내 최초 사회책임투자펀드 판매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 친환경 금융 지역 중소기업 ESG 경영 안착 도와

지난해, 전 계열사 탈석탄금융 선언 탄소 배출 2050년까지 100% 감축

출권 거래에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안정적 매매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DGB캐피탈은 ESG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폐기물 자원화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하이투자파트너스는 그룹의 ESG 경영 전략에 따라 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발굴·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 "지역 내 ESG 확산 역할"

DGB금융그룹은 지역사회에도 ESG경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DGB금융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ESG 경영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경북지역 제조 기업인 삼우기업, 와이제이링크, 삼보모터스 등과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전문 ESG 컨설팅 업체와 함께 중소기업 ESG 수준을 진단 평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울러 DGB금융은 공공기관과의 ESG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다. 하반기에는 서울대 지속가능경영학회를 초빙해 세 차례

세미나를 열고 지역 내 ESG 관련 논의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도모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ESG 경영 관련 정보를 얻을 곳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 내 ESG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시대, 탈석탄 금융 선언

DGB금융은 앞으로도 ESG경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금융지주 최초로 전 계열사가 탈석탄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2010년부터 DGB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부 검증을 거쳐 현재까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공시하고 있다. 또 2018년에는 TC 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가입을 시작으로 SBTi(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이어 올해는 SBTi로부터 탄소감축 목표를 승인받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DGB금융은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내부 탄소 배출량은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46% 감축할 계획이며,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을 각각 2040년, 2050년까지 100% 줄인다는 목표다.

DGB금융 관계자는 "여신 및 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등 금융자산 탄소배출량을 산정했으며, 위험 노출 정도가 높은 중점관리 산업에 대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민재, 부상 회복 오래 걸릴듯...경기 중 교체 /사진 뉴시스
▲몸값 오르는 조규성...“셀틱, 이적료 45억원 제시”

▲뉴캐슬·애스턴 빌라 등 4팀 이강인에 관심...공식 제안은 아직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주세종, K리그 1 대전 완전 이적



▲프로야구 KIA 나성범, LG전자 초청으로 CES 2023 참관
▲김주형, PGA 새해 첫 대회 5위...이경훈 7위-임성재 13위 /사진 뉴시스